2021년 2월 3일 (12.22) 수요일

한Gua Información 한과정보

한과정보

코로나 19 현황

총확진	日확진	사망
160,299	667	5,709

기준환율 : ₩ 1,114.10 송금시 : ₩ 1,103.20 팔때 : Q 7.61 살때: Q 7.95

대사관 : 2382-4051~55 이메일 : embcor.gt@mofa.go.kr 대사관긴급전화 : 3368-9333 한인회 : 2445-6461

정부, 코로나 백신 2월 말 도입 접종 순서는?

보건부는 코로나 백신의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나 대략적인 백신접종 우선순위에 대해 발표했다.

Covax를 통해 과테말라에 들어오는 코로나 백신은 2월말 약 80만 회분으로 예상되며, 최초로 도입되는 백신은 코로나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될 것이라고 알레한드로 지마아떼이 대통령과 Amelia Flores 보건부 장관은 밝힌 바 있다.

과테말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은 총 4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약회사의 백신 생산 및 수급상황에 따라 <6페이지에서 계속>









그린 . 해피 마트

1월 28일 미국 냉동 콘테이너 입하

이천쌀. 현미. 현미찹쌀. 찹쌀 외
신선한 잡곡류
소금구이고등어. 이면수. 통낙지
통동태. 통고등어. 물오징어. 한치
장어. 전복 외 다양한 냉동식품
도시락김. 끼꼬망 간장. 표고버섯
가쓰오부시. 장어소스 외
다양한 소스류가 가득~~



1월 13일 한국 냉동 콘테이너 입하 판매중

비비고 만두류, 대용량 만두, 튀김만두, 물만두, 손만두 등 다양한 만두류
떡갈비, 순대, 떡볶이, 안주야곱창, 핫도그 등 냉동식품
다양한 라면, 과자류, 다양한 식품류

그린마트	해피마트	해피마트 2호점
5525-1200 2433-9651 1calle 32-51 Z.7 col. Toledo	4025-2266, 5893-8565 2334-7344, 2362-3475 Bulevar Liberacion 4-11 Z.9 Local #1 Plaza Asadis	12calle 3-40 Z.14 (비발디 아파트 바로 옆) 4025-2266,5525-1200 2221-7004

샤인코리아

한국 슈퍼 마켓

교민과 함께하며 신선한 제품과 저렴한 금액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 오뚜기 HITEJINRO paldo

1월 19일
한국 냉동,일반
컨테이너 입하



간식: 콩쑥개떡, 매콤핫바, 해물핫바,냉동찰옥수수, 아이스 대봉감,치즈볼,우유튀김
만두: 육즙가득 갈비만두, 딤섬새우 하가우
생선: 보리굴비, 찐보리굴비, 제주한치
안주류: 매운닭꼬치, 불고기, 제육볶음
과자: 젤리 스트로우
다이어트 식품: 교촌닭가슴살 4가지맛 쏘세지, 훈제 닭가슴살, 흑당미숫가루
한끼수제 영양밥, 궁중닭갈비볶음밥 브리또, 구기자즙, 칡즙
반찬: 건조 매생이, 속초 명태회무침, 갈치속젓, 멍게젓, 명란젓
재입고 : 도야진국돼지국밥, 야관문즙, 야관문주
기타 일반 제품 및 신제품 다량 입하



Tel : 2296-6152 / 2296-6153 / 2439-7176 / 2 Calle 34-15 Zona 7
영업시간 : 오전 8시30분 ~ 오후 8시 / 시내 전지역 배달 / 신용카드 사 용 가능

샤인 빵집 한국 베이커리

주문 예약 전화 : 5701-4323, 2296-6152~3
한국 제과 제빵 종류는 뭐~든지 예약 전화 주세요.



고구마, 녹차, 모카, 과일생크림,
초코케익, 롤케익
아침 10시부터 갓구은 빵이 나옵니다.



INK PAIS
잉크빠이스

잉크빠이스
복사기 임대 및
판매 개시!!



◆ 교민 여러분을 위한 칼라 잉크 프린터기 구입시 TIP!

프린터기 구입 모델은 엡손 L300 이상 (캐논보다 포멧 가격이 저렴하고 까르뚜쵸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구입시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 안에 잉크병은 절대 버리시면 안됩니다.)

또한 자사 잉크는 타업체보다 엄청 저렴합니다.

▶ 타업체 70ml Q99 ▶ 잉크빠이스 325 ml Q100



CCTV 판매 실시



컴퓨터 조립 및 프로그램 판매

- 문의전화 -
2439-3692
5529-4481

젯트 여행사

Instituto Guatemalteco de Turismo 관광청 승인 여행사

INGUAT

◇항공◇

1. AEROMEXICO 주 2회 운항
   - 과테 ~ 인천 : 목.토
   - 인천 ~ 과테 : 월.토
   - 과테-멕시코 : 1일 2회 운항



2. UNITED AIRLINES
   - 과테 ~ L.A직항 : 월.화.목.토
3. AVIANCA AIRLINES
   - 과테 ~ L.A직항 : 화.수.금.토
4. DELTA AIR LINES
   - 과테 ~ L.A직항 : 화.수.금.토

◇관광◇

※ 과테말라 국내 및 주변 국가 년말여행
* TIKAL - 당일관광 $290
* TIKAL - 1박2일 호텔포함 $380

* 우리만 떠나는 단독여행
* 숙박과 취사시설 완벽한 방갈로식 콘도 단독 여행 안내 드립니다

※ 차량렌트 - 소형. 중형.대형



과테 입국시 96시간 내 PCR 검사지 의무화 (항원검사Prueba Antigeno허용) https://sre.gr/es/기록

13calle. 3-40 Local 41. 2do. Nivel. Edificio Atlantis Zona 10
E-mail : taeshim62@hotmail.com jetexpressgua@yahoo.com
Tel : (502) 2385-4646 직통전화 : (502) 2383-4324 HP : (502) 5867-5867

Jet Express Travel Agency & Tours

하나 엔지니어링

문의 : 오오이팔 - 이사일삼 / E-mail : hanaeng2004@gmail.com

경원 공식 에이전시에서 알려드립니다

경원 콤퓨레셔 오일이 12월 20일 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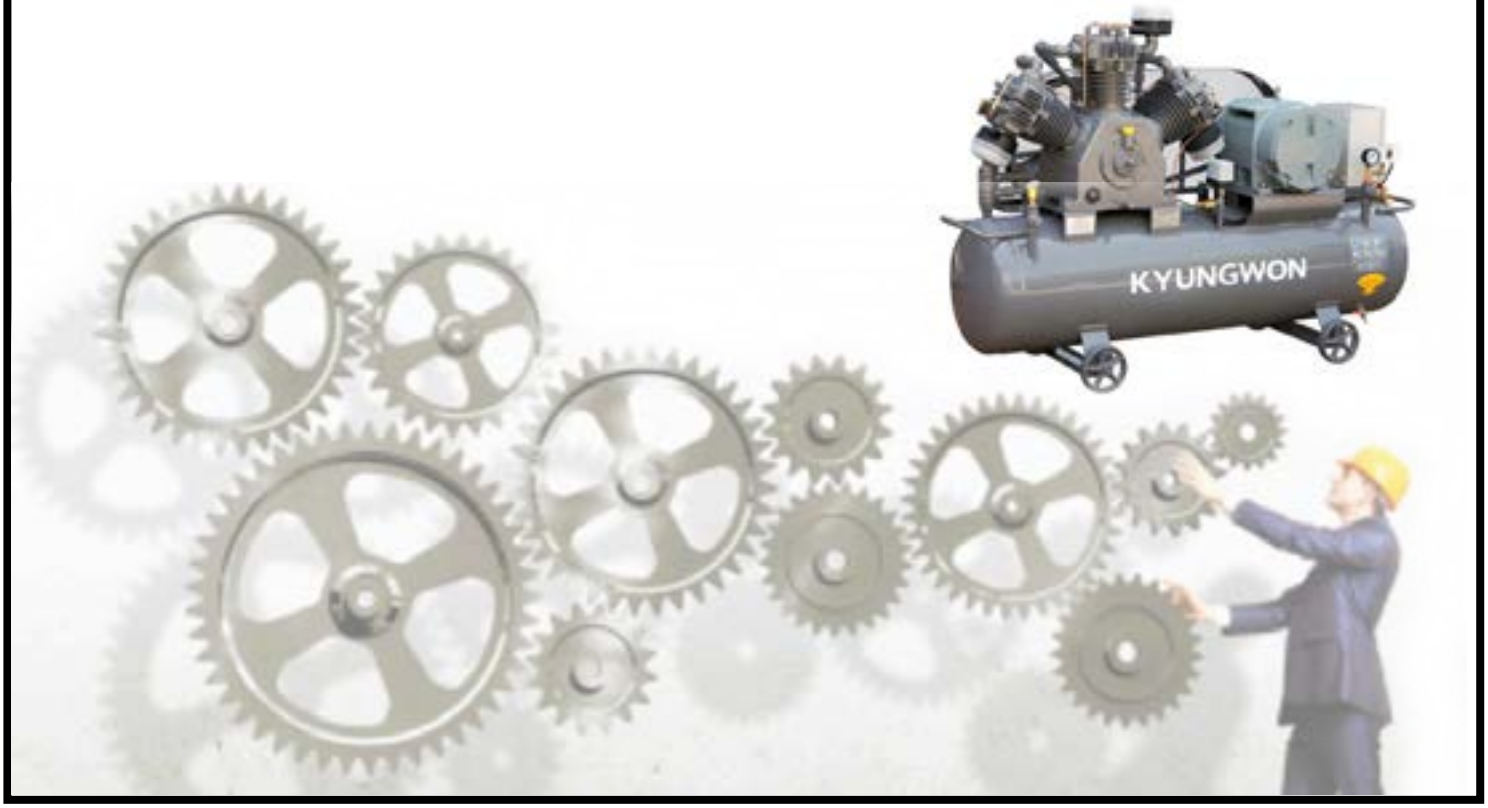
고온에 더 강하고 윤활 작용이 뛰어난 오일로 변경되었으며

명칭은 **AIRLUBE SUPER**입니다.

특별 가격은 US$ 150.^{00} 이며 공식 에이전시에서

구매하실수 있으며 공식에이전시가 아닌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정품이 아닐수 있으니 구매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과테말라 / 중남미 주요뉴스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로 과테말라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847,200회 분의 코로나 백신(42만 3천명 분)은 2월말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이 후 Covax를 통해 두 번째 도입될 코로나 백신은 5월과 8월 사이에 과테말라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입될 백신 수량은 아직 알 수 없다.

첫 번째 도입될 백신은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병원 직원(의료기술자 및 행정직원)들에게 접종되며, 이들의 백신접종이 끝나면 보건관계자들과 의대생들 순이며 마지막으로는 재난대책본부(CONRED) 직원과 환자들을 이송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Julia Barrera 보건부 대변인은 우선 접종될 코로나 백신을 위해 접종 대상인 병원과 정부 기관 및 의대 등에게 접종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정보를 요청해 백신접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1차 접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홍보실의 Patricia Letona는 "1차 백신 접종 대상자 중에는 지아마떼이 대통령 조차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과 국회의원들도 일반 시민들과 같이 보건당국의 백신접종 수립 계획에 따라 백신을 접종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한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번호(DPI) 및 직업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확인될 예정이며, 임의로 접종 대상자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Julia Barrera 보건부 대변인은 밝혔다.

Barrera 대변인은 "접종대상자 관리 시스템 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는 불가능하며,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잘못 입력했더라도 이름을 증명하는 법적인 서류를 첨부해야 수정이 가능할 정도로 시스템 관리가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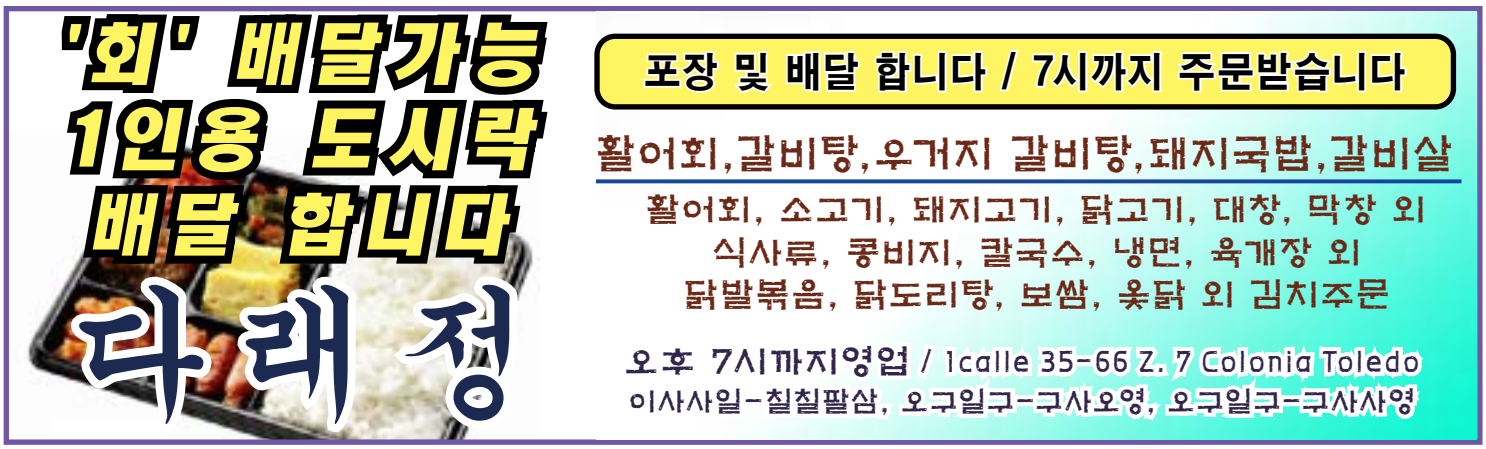
Soy502

멕시코 이민자 학살 사건 경찰 12명 연루

멕시코 Tamaulipas주 검찰은 1월 22일 지역내에서 발생한 이민자 대량학살 사건에 최소 주 경찰 12명이 연루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되었다고 밝혔다.

주 검찰은 신원확인 과정에서 과테말라 국적 2명과 F. O. R. N.과 Marvin A. T.라고만 알려진 멕시코 국적의 희생자 두 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멕시코 희생자 중 한명은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밀입국 시키는 코요테 조직원이라고 밝혔다.

또 어떤 범죄조직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며, 불에 탄 트럭 2대 외에도 미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과테 시내
배달개시
Q300 이상

과 테 골

- 도시락 전문 -

낮 12시부터
오후6시까지
모든메뉴배달



♣ 보쌈, 족발
♣ 김밥, 김치볶음밥
♣ 오리로스. 훈제
♣ 생삽겹
♣ 양념통닭
♣ 후라이드통닭

활 어 회
다량 입하

각종 찌개 ♣
김치 판매 ♣
다양한 점심메뉴 ♣
영양탕(매주 화요일) ♣
닭,오리 백숙(오전예약) ♣
출장 뷔폐/돌잔치/회식 ♣

이사칠칠-이육삼팔 / 이칠칠오, 오삼영사-사일사오
46 calle 6-87 Z.12 Col.Montemaria 3 / 월~토 12시부터 영업

ÓPTICA CAMALEÓN
2361-4731 3761-9349
opticacamaleon@gmail.com

ÓPTICA CAMALEÓN

3Ave. 12-28 Zona 9
Waze로 OPTICA CAMALEON을 검색!
명가식당 정면으로 70m에 위치
월~토 (9:00~5:00) 주차장 완비



일요일 (10:00~5:00)

한인안경원

한국인에 맞는 편안한 안경 다량 보유
토마토 어린이 안경 전모델 보유
※ 다양한 렌즈 보유 ※

50분 완성(검안포함)
30분완성 (렌즈만 교체 - 검안 제외시)

마하다스 상가 바디프렌드 매장 내 안쪽 / 8calle 28-00 Z.11 Plaza Las Majadas #24 / ☎ 삼공이구-삼육팔사

The nail 손.발 케어 및 내성발톱 관리 전문

속 눈썹 연장 / 펌
네일아트 연장 / 아트
패디큐어 / 각질케어
내성발톱 / 무좀발톱 관리
무좀 관련 제품 판매
네일·눈썹 영양제 판매

◈ 발톱 교정 관리 ◈



◈ 발톱 무좀 관리 ◈



국으로 밀입국 하려던 과테말라인과 엘살바도르인들을 태운 차량들이 더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코요테 조직은 이민자들을 태운 트럭에 보안조치를 이유로 무장한 남성들을 함께 태워 이동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민자 학살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체포되는 경우, 50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테말라 정부와 멕시코 정부가 사건 조사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멕시코 Tamaulipas주 검찰은 밝혔다.

Prensa Libre

'닭고기 냉장트럭'으로 수송된 코로나 백신 볼리비아 '시끌'

앞에는 볼리비아 국기가 걸려있고, 옆면엔 닭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낡은 트럭 한 대가 앞뒤로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달린다.

볼리비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생뚱맞은 영상 속 이 트럭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실려 있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EFE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볼리비아 중부 트리니다드에선 항공편으로 도착한 백신이 닭고기를 운반하는 차량에 옮겨져 수송되는 장면이 연출됐다. 트럭 옆면에는 닭고기 업체 이름도 그대로 적혀 있었다.

볼리비아 정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 보건당국이 준비했던 백신 수송차량에 문제가 생겨 긴급하게 냉장차량을 가진 업체들을 수소문했다"고 설명했다. 백신을 싣기 전에 차량 소독을 마치고 생물보안 규정도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닭고기 대신 실렸던 백신은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 백신이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동결건조된 상태로는 영상 2~8도에서 보관과 운반이 가능해 비교적 취급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남미 볼리비아는 지난달 29일 러시아 백신 첫 물량 2만 회분을 받아 의료진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의 미봉책이었다고 해도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수송 인프라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에 볼리비아 내에선 논란이 일었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아르투로 무리요 전 내무장관은 트위터에 "검증되지 않은 러시아 백신을 운반해준 닭고기 업체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대비 부족을 겨냥했다.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 등 앞으로 더 많은 백신이 도착할 상황에 대비해 콜드체인(냉장유통)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현지 일간 엘데베르는 전했다. 볼리비아는 이달 중 화이자 백신 9만2천430회분을 받을 예정이다.

반면 온도 등의 요건만 맞으면 어떤 차량이 동원되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RESTAURANTE HAN GUN GWAN



▶ "냉면 전문식당 그 외 다양한 메뉴 / 연중무휴
▶ 넉넉한 주차공간 보유 (대리운전 콜 서비스)

이사삼구-오구이칠, 사육이영-이칠오구 / 2a. calle 33-14 Z.7 calz. mateo flores

박 상 민
healthcare clinic

가정의학과 박 상 민

Healthcare Clinic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

24 시간 왕진/일요일 진료 가능

방문 영양제투여
방문 예방접종 가능



심장클리닉

심전도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24시간 활동혈압 검사



예방접종

영유아, 어린이, 성인



만성질환 질병 관리

고혈압, 심혈관, 당뇨병



신종 코로나 (COVID - 19) rT PCR 검사
해외 입국용 / 진단용 검사

▶전화 : 2439-8225, 4004-6267 ▶ 카드결제가능 ▶Waze/Google map/Uber : '박상민 클리닉' 검색

샬롬여행사
(SHALOM TOUR)

32 Ave 1-28 Z.7 Utatlan(농원 2층 위치)
2439-7650, 2439-7706, 5990-7197
shalomlim@hotmail.com, shalomlimgua@hanmail.net



2021년 새해에도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여행사 탁상달력 나왔습니다>

※ 과테 입국시 : 코로나 음성 (96 시간내) 확인서와 입국시 앱에 등록해야 합니다. https://sre.gt/es/

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EFE통신은 보도했다.

연합뉴스

페루, "산소통 채우려 72시간 노숙"

남미 페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빠른 재확산으로 신음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현재 페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약 114만 명, 사망자는 4만1천여 명이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웃돌고, 사망자도 200명 가까이씩 나온다.

인구 3천300만 명가량의 페루는 지난해 8월 한때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에 육박하는 가파른 확산세를 보였다가 10~12월 안정세를 찾으며 일일 확진자 1천~2천 명선을 유지해 왔는데 새해 들어 다시 감염자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1차 때보다 더 기세가 매서운 2차 유행에 병상과 의료용 산소 부족도 심각해졌다.

집에서 산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위해 가족들이 산소 충전소 앞에서 노숙하며 72시간씩 줄을 서기도 한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수도 리마 인근의 한 산소공장 앞에 줄을 선 야밀 수카는 AFP에 "전날 새벽 5시에 왔는데 이미 늦었다. 내 앞에 2~3일씩 기다린 사람도 있다"며 코로나19에 걸린 아버지를 위해 절대 빈 통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공장에선 45분에 10통꼴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오후 5시 문 닫을 때까지 차례가 오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텐트나 담요, 종이상자에 의지해 밤을 보내며 다음날 다시 문 열기를 기다린다.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에 리마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다시 봉쇄를 시작했다.

페루는 지난해 3월부터 장기간 엄격한 전 국민 의무격리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린 것이다.

약국과 슈퍼마켓 등을 제외한 비필수 업종 상점은 모두 다시 문을 닫았고, 외출과 이동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지난해 장기간의 봉쇄로 상당한 경제 충격을 감내했던 터라 재봉쇄에 따른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생계난을 호소하며 봉쇄에 반대하는 시위도 잇따랐고, 격리 명령을 어긴 채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도 많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페루는 백신 확보에도 매달리고 있다.

이날 페루 보건당국은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중국 시노팜 백신의 수입과 사용을 허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페루는 오는 9일 시노팜 백신 첫 물량을 받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온세상달

과테 전지역 배달 전 문 점

오후 6시까지 주문받습니다.

해 물 탕	닭순살 튀김	김치찌개
해 물 찜	모듬스시+초밥	된장찌개
코다리찜	떡 볶 이	동태찌개
김치고등어조림	돈 까 스	물 냉 면
김치돼지갈비조림	설 렁 탕	해물순두부
해물샤브샤브	육 계 장	해물칼국수
닭 갈 비	우거지갈비탕	해물수제비
닭도리탕	제 육 덮 밥	치즈김치볶음밥
오징어볶음+사리	오징어덮밥	모듬볶음밥
골뱅이무침+쫄면	불고기덮밥	김 밥





※ 배추김치,알타리,물김치 판매

※ 회사도시락 배달 ※ 일요일 쉽니다 ※ 24calle 8-80 Z.11 mariscal

Tel : 5194-9428 / 3180-7623 / 3652-7919

골다방 포차

(구) 쥰스크린 골프

골다방 포차에 가면



노래방도 있고
골프도 치고
음식도 먹고
술 한잔도 하고

오시기전 예약 필수!!

짱!
즐거워요

일요일 정상영업 합니다

영업 시간

월~금 : 오후 2시 부터 자정까지
토요일 : 오전 10시 부터 자정까지

Cel. 4218-7400 Tel.2233-7435 2calle 32-77 Ofibodegas San Mateo Bodega #1

사 설

가덕도 이어 해저터널까지, 여야 '이성' 찾아야 (한겨레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더해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내놨다. 김 위원장은 1일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또한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개발 공약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지난해 11월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자마자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내 이견 탓에 찬반을 정하지 못하던 국민의힘도 최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혼전 양상으로 흐르자 동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여기에 더해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공약하며 "생산부가효과 54조5천억원, 고용유발효과 4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 가덕도보다 더 센 개발 공약을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1㎞당 건설비가 최대 1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일본과 협의 없이 추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선 설명이 없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2일 "부산항을 스마트화하면 경제성도 많아질 것"이라며 "여당도 야당이 안을 내놓으면 좋은 것은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일 해저터널 공약에 대해선 "친일 디엔에이(DNA)가 발동했다"고 비난했다. 염치없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면제·단축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무책임한 개발 공약 경쟁을 촉발한 민주당이 할 소리는 아니다. 여야를 떠나 대형 국책사업은 사전 타당성조사를 엄격히 해야 할 뿐 아니라 환경 파괴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은 없는지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치는 게 마땅하다. 선거 때마다 남발한 '정치 공항'과 4대강 사업 등에 따른 후유증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더는 같은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 여야 모두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與 "재난지원 선별·보편 모두 추진"… 텅 빈 곳간은 누가 채우나 (동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취약계층 대상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을 모두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에 4차례나 추경을 집행했다. 한 해 4차례 추경은 59년 만의 일이다. 올해는 558조 원이나 되는 슈퍼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그래 놓고도 연초부터 초대형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선별·보편 동시 지원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과도한 재정 투입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가도 결국은 '백기'를 드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작년 1차 때의 14조3000억 원을 뛰어넘는 재난지원금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연초부터 이런 식이면 올해 안에 국가채무 1000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면서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라 곳간은 때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다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한번 늘어난 씀씀이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수많은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아픈 경험이다. 더구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코로나 지원 등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는 것이 납세자와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협력이익공유제 등 '상생연대3법'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대 기업 영업이익이 20% 증가한 사실과, 1990년 75.4%였던 중산층 비중이 2019년 58.3%로 떨어진 사실을 대비시켰다. 이익을 낸 기업들에는 '알아서 동참하라'는 압박으로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중산층 비율이 급감한 것은 기업들의 책임이 아니다. 경제정책의 실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익공유제처럼 반시장적인 정책은 기업할 의욕을 꺾어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장애물이 될 뿐이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라 이 프

HAPPY NEW YEAR

바나나 자주먹으면 뱃살도?



성인이 바나나를 즐겨 먹으면 복부 비만·고혈당·고중성지방혈증 등 대사 이상 위험이 25% 이상 감소한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식품영양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된 한국교통대 식품생명학부 배윤정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64세 성인 3091명을 대상으로 총 12종의 과일(딸기·참외·수박·복숭아·포도·사과·배·감/곶감·귤·바나나·오렌지·키위) 의 종류별 섭취량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과일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바나나를 중앙값 (median, 섭취량이 작은 순에서 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오는 숫자) 이상 섭취하는 남성의 고혈당·고중성지방혈증 위험은 바나나를 적게 먹는 남성보다 각각 29%·25% 낮았다.

바나나를 평소 많이 먹은 여성은 적게 먹은 여성보다 복부 비만·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이 각각 28%·33% 낮았다.

사과의 경우, 중앙값 이상 섭취하는(평소 즐겨 먹는) 남성의 혈압 상승 위험은 평소 사과를 적게 섭취하는 남성보다 27% 감소했다.

여성에서도 사과를 많이 섭취할수록 고혈당·고중성지방혈증·저 HDL 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이 낮게 나타났다.

배 교수팀은 논문에서 "사과·바나나 등 과일엔 비타민 C·카로티노이드·폴리페놀 등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며 "사과·바나나의 섭취가 복부 비만·고혈당 등 대사성 질환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 주당 섭취 빈도가 높은 과일은 사과(1.9회)·귤(1.1회)·바나나(1.1회) 등이었다. 주당 섭취량이 높은 과일은 사과(459g)·배(166g)·수박(125g)·바나나(115g)·귤(114g)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내 성인의 12가지 과일 섭취 빈도는 주(週) 6.4회, 하루 0.9회였다. 12가지 과일의 섭취량은 주 1,355g, 하루 194g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Health Plan 2020)엔 과일·채소의 하루 500g 이상 섭취가 목표로 설정돼 있다.

바이어스작업

♣ BIAS(랍빠감,니트/우븐) 다대 및 바이어스 요꼬 커팅
♣ 스파게티 작업합니다.
♣ 랍빠 및 애리가다, 굿찌가다, 후다등 "패턴포머 전문제작"
♣ 각종 ATTACHMENT 인타, 오바, 삼봉, 샤링

랍빠전문

니트 및 우븐 핀탁랍빠

품질 보증, 납기 엄수

담당 : 박상봉 5526-0630

Fabrica empresarial montaña
km18.5 carretera san juan sac
Aldea naranjito Z.6 de mixco
A-41-68 bodega no.2

바나나의 이색 변신 대공개! 색다른 바나나 요리 10

남녀노소 구분 없이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가 바로 바나나가 아닐까? 계절 상관없이 1년 내내 먹을 수도 있고 건강에도 좋아 많이 찾는 편이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섬유질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애용된다. 하지만 워낙 보관 기간이 짧다 보니 금세 물러버릴 때가 많다. 더 물러져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기 전! 바로 아래 레시피에 도전해보자. 맛도 영양도 만점인 바나나로 만든 요리 레시피 10가지를 소개한다.

반전의 맛, 바나나 전

담백하면서도 달콤한 오후 간식으로 바나나 전은 어떨까? 바나나를 으깨 갈아 넣어 부드러우면서도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이라 자꾸 손이 가게 만든다. 으깬 바나나와 밀가루 혹은 부침가루와 계란을 넣어 잘 섞어주고 소금으로 살짝 간을 더한다. 식용유를 두른 팬에 한입 크기로 올려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주면 된다. 체리나 블랙 올리브, 체다 치즈 등을 위에 토핑으로 올려주면 보기에도 좋고 색다른 맛을 더해준다.

쫄깃쫄깃 식감이 예술, 바나나 떡

겉에는 달콤한 카스텔라 가루가, 안에는 바나나가 통으로 들어 있는 쫄깃쫄깃하고 달콤한 바나나 떡이 SNS에서 화제다. 먼저 찹쌀가루 2컵과 바나나 2개, 소금 약간을 넣어 치대가며 반죽해준다. 바나나는 갈변현상이 있으니 이 작업을 최대한 빨리해주는 것이 좋다. 완성된 반죽을 떼어 밀대로 편 다음 자른 바나나를 안에 넣고 감싸준다. 끓는 물에 익히다가 떠오르면 중불로 줄여 2분 정도 더 익힌 후 꺼낸다. 이때 찬물에 바로 담그면 식감이 더욱 쫄깃해진다. 곱게 간 카스텔라 위에 떡을 굴려가며 묻히면 향긋한 바나나 떡이 완성된다.

달콤 향긋, 바나나 잼

시들어가는 과일이 처치 곤란할 때는 재빨리 잼으로 만들어두면 좋다. 먼저 바나나를 얇게 저며 썰어 냄비에 담아 물을 붓고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끓여준다. 어느 정도 걸쭉해지면 바나나 4개 기준 약 100g의 설탕을 넣어 계속 저어가면서 중간 불로 끓여준다. 잼이 완성됐는지 확인하려면 투명한 컵에 찬물을 넣고 조금 넣어본다. 이때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완성됐으니 옮겨 담으면 된다. 금방 구운 빵에 잼을 발라 먹으면 흔한 딸기잼보다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것이다.

아침에 한 잔, 바나나 스무디

바나나 스무디는 바쁜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가볍게 마시기 좋다. 또 바나나와 함께 넣을 수 있는 재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바나나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믹서에 넣고 우유와 얼음을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가장 기본적인 바나나 스무디가 완성된다. 그때그때 만들어 먹으면 좋지만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경우라면 레몬즙을 살짝 넣어주자. 레몬의 성분 때문에 바나나의 갈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아이들 간식으로 최고, 바나나 아이스바

초콜릿에 풍덩 빠진 바나나를 상상해보면 벌써 엔도르핀이 솟는 것 같다. 아이스크림을 찾는 아이들에게 바나나 아이스바를 대신 줘도 매우 좋아한다. 먼저 바나나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잘라 나무 막대나 나무젓가락에 꽂는다.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고 포일로 감싼 다음 1시간 정도 냉동실에서 얼린다. 중탕한 초콜릿에 바나나를 풍덩 담가 주고 잘게 부순 견과류나 시리얼 위에서 한번 굴려주면 색도 맛도 배가된다.

주말의 여유로운 브런치, 바나나 팬케이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핫케이크 가루는 언제 먹어도

한 진 정 밀
Han Jin Industrial
Tel : 5401-9261
7a calle 26-35 Z.4 de mixco boulevard bosques de san nicolas



◆ 모든 상표 전기종 신품 미싱 판매
◆ 봉제 모든 미싱 부속 및 소모품 판매
◆ 전사 프린터 판매
◇ 전화주시면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중고기계 구매합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작동이 안돼 기계실이나 창고에 방치 되어 있는 기계들 처분 하실 분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선반 / 밀링 / 용접 / 미싱개조 / 몰드제작 ☎ 4417-5733 / 3761-6132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한인부동산

토지.아파트.주택.오피스.창고.상가/ 판매.분양.및 렌트
하나 김 CEL.5252-3431 (hanakim3431@gmail.com)

Z.10 Portofino 아파트 임대. $1,250. 아파트만 219mts. 방3. 식모방. 넓은 테라스. 주차장2
Z.11 Parque 11 아파트판매 $135,000. 99mts. 방. 주차장2
Z.11 las charcas 2층집 판매. $250,000. 306mt. 방5. 서재. 거실2. 식모방. 정원
Z.11 새아파트 Aralia 판매. $170,000. 144mts
Z.11 Las Gemas 아파트 판매 $210,000. 아파트만 172mts. 방4, 주차장 2
Z.12 Prados Monte Maria 아파트판매 Q840,000. 84mt. 방3. 주차장2
Z.14 Torre Canada 아파트 판매($350,000) 및 임대($1,850) - 245m2.방3. 화장실3. 식모방
Z.14 Casa once 아파트 판매 $270.000 및 렌트 $1.200 방3.주차장2.창고
Z.14 Barletta 새아파트 판매. $500,000. 300mts
Z.14 Bellagio 아파트 판매 및 임대
Z.14 Casa Roble, Santa Ines del Parque, Vertic 분양
Z.15 Vh2 땅판매 948Vrs. 위치최상
Z.15 Albero San Lazaro 아파트 분양. 2022년 12월 완공. 최고의 위치. 저렴한 가격
Z.15 LIV 아파트, 펜트하우스 판매. $550,000. total 312mts. 방3, 식모방. 주차장 4. 창고2
Z.16 Lomas de San Lsidro 넓은 주택판매. $480,000
Muxbal 아파트 판매 $650,000. 총580mts. 방. 서재. 거실. 식모방. 주차장4. 넓은테라스
Carretera al salvador. km9. Torre real 아파트 판매. $625,000. 329mts
Condado naranjo 아파트 임대. Q4,500. 89m2. 방. 화장실 2.5, 발코니. 주차장

名家 명가



한방오리백숙, 오리탕,
쟁반국수, 콩국수, 치즈까스,
맛있고 저렴한 스시롤
활어회, 복사시미
숙주와 차돌, 복찜, 아구찜,
염소탕, 삼합, 숯불돼지갈비



소머리곰탕, 곱창구이
양념돼지껍데기
간장게장.새우장 주문
- 현지인 회식 -
삼겹살 무한리필 Q80
다양한 메뉴/점심 메뉴
회사 도시락 배달/ 일반배달

연중무휴 / 평일 9:00, 일요일 6:30 / 이이일구-구육육육, 이이삼사-육팔육삼, 오칠영삼-일칠삼사

맛있다. 이때 바나나를 으깨 반죽에 함께 넣으면 한층 깊어진 풍미를 느껴볼 수 있다. 옥수수 캔이나 건포도가 있으면 반죽에 추가해 식감을 살려줘도 좋다. 팬케이크는 굽는 데 은근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뚜껑을 닫고 조리해 주면 좋다. 도톰하게 구워내 시럽을 뿌려 먹어도 좋고 얇게 부쳐 켜켜이 쌓아 사이사이 생크림을 발라주면 크레이프 같은 맛으로 즐길 수 있다.



제법 잘 어울려요, 바나나 시나몬 토스트

시나몬은 달콤한 요리에 더하면 특유의 향이 더욱 잘 배어난다. 바나나 시나몬 토스트 역시 달콤한 맛에 향이 더해져 더욱 고급스러운 맛을 즐길 수 있다. 식빵을 노릇노릇하게 구워 땅콩버터나 딸기잼 혹은 바나나 잼을 발라준다. 얇게 썬 바나나로 식빵 위에 가득 올리고 그 위에 시나몬을 살짝 뿌려준다. 아가베나 올리고당 시럽이 있다면 적당량 둘러주어 달콤한 맛을 더해줘도 좋다. 만약 파니니나 샌드위치 기기가 있다면 적극 활용해 비주얼까지 놓치지 말자.



시리얼과의 케미, 바나나 튀김

바나나를 튀기면 과연 맛있을까? 정답은 YES! 사실 세상의 튀긴 음식은 모두 맛있다. 하지만 그냥 튀기는 것보다 다른 재료를 조금만 더하면 훨씬 군침 도는 바나나 튀김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다. 한입 크기로 자른 바나나를 밀가루에 굴리고 튀김가루 반죽 옷을 입혀준다. 그다음 여기에 잘게 부순 시리얼을 묻혀주는 것이 포인트다. 잘 떨어질 수 있으니 눌러가며 골고루 묻혀주고 기름에 튀겨내면 바삭바삭한 식감이 예술인 바나나 시리얼 튀김이 완성된다.

맥주와 찰떡궁합, 바나나 칩

보관 기간이 짧은 바나나다 보니 금세 검은 반점이 생기고 만다. 하지만 바나나 칩을 만들 때 딱 그 상태의 바나나를 이용하면 훨씬 달콤한 바나나 칩을 만들 수 있다. 0.5cm 두께로 썬 바나나를 레몬즙 뿌린 물에 2~3분 정도 담가 갈변 현상을 방지해준다. 키친타월 위에서 물기를 빼주고 120도로 예열한 오븐에 약 2시간 정도 구워주면 된다. 쫀쫀한 식감이 좋다면 조금만 말려주고 바삭바삭한 식감이 좋다면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좋다. 튀기는 것보다 구워내기 때문에 느끼함 대신 담백하면서도 달콤함이 느껴진다.

달콤 두 배, 바나나 초코칩 쿠키

밥 한 끼보다 더 욕심나는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어보자. 오일과 연유를 1:1로 섞어 층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저어준 다음 으깬 바나나를 넣는다. 박력분과 베이킹파우더를 체 쳐서 내리고 달콤한 초코칩 토핑을 넣어 잘 섞이도록 저어준다.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약 15~20분 정도 구워주고 망 위에서 한 김 식힌다. 바삭바삭한 식감과 함께 달콤한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

고혈압 환자의 고민, 수분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킬까?

Q. 고혈압이 있는 40대입니다. 고혈압 관련 기사를 봤는데,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혈액량이 많아져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나 아니면 평소에 물을

명 진 정 밀

뚤람수 로떼 9 만사나 A 섹또르 5
소나 4 데 믹스꼬
전화 : 이사삼사-이이오이/일오삼사
팩스 : 이사삼칠-팔구영칠
핸드폰 : 오영영사-영팔영육

마이깡 몰드 제작
재단기 부속 판매
패턴 포마 아크릴
마카지,패턴지,밑종이

미싱부속 판매
봉재용 소모품
각종 바늘 판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체리쉬

☎ 5000-7503
한국관 옆 (구)다솜

SALE

여성 수제화
(50% 원가이하)

여성의류, 악세사리, 그릇, 각종소품 판매

많이 마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던데... 고혈압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지 않은 건가요?

A. 수분은 우리몸의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 꼽힙니다. 수분은 체중의 60%를 차지하며 뇌와 근육은 75%, 연골은 80%, 혈액은 94%로 체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수분은 몸 전체를 돌며,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수분은 체내 산소를 운반하고, 체온조절, 배설,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특정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얼마만큼의 수분을 섭취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먹어야 하는 대표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렴, 기관지염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인한 감기가 걸렸을때 미지근한 물을 자주 먹어야 도움이 됩니다.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은 열이 오르고, 호흡이 힘들어져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줌으로써 체내 온도를 유지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당뇨병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액을 묽게 하려고 수분이 많이 사용됩니다. 신부전 합병증이 없다면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3. 고혈압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농축돼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혈전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잠을 자다가 밤이나 새벽에 깼을 때도 물을 조금씩 마셔주는 편이 좋은데 이는 고혈압 환자의 뇌졸증 위험성 때문입니다. 자는 도중 혈액이 끈적해지므로 새벽에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전이나 지방이 혈관벽에 쌓일 수 있어 고혈압을 앓고 있다면 하루에 2L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들도 수분 섭취는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을 짜게 드시면 혈액의 삼투압이 높아져 혈액이 오히려 걸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것이고 물을 많이 드신다고 혈액량이 많아져서 혈압이 돌라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짜게 드시는 습관이 고혈압에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즉 저염식으로 드시고 물은 자주 하루에 2L정도 드시는 게 고혈압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정 치 · 경 제

최재성 靑수석 "'北원전' 대통령 보고 없어.. 메일도 뒤져봤다"

"어느 조직이든 실무자가 의견 만들었다 '킬'되는 일 무수히 많아"
"USB 공개해도 원전에 '원'자도 없어…국민의힘이 책임 제시해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른바 '북한 원전(핵발전소) 추진 문건'과 관련해 일개 공무원의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청와대 지시설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에 건넨 USB를 공개하라'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먼저 응당한 책임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수석은 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해당 문건은 "작성자 개인의 아이디어로 그냥 끝난 것"이라 주장했다. "어느 조직에서도 실무자가 의견을 만들었다가 소위 '킬'(kill) 되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재가돼서 극비리에 추진됐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작성한 사람의 문건 내용이 굉장히 현실성 있고 채택이 될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면 청와대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각종 단위에서 이것을 논의한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며 "혹시나 해서 점검을 해보니 없는 거다. 대통령에게 당연히 보고가 안 된 거고,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 일축했다. 최 수석은 "오죽했으면, 혹시 사적으로라도 또 누가 (공유나 보고)한 것 아니냐고 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메일도 전부 다 지금 개인적으로들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SBS 등은 '월성원전 조기 폐쇄'로 감사를 받게 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몰래 삭제한 문건 중 '북한 원전 추진' 내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이를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로 칭하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에 건네진 USB에 원전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며 해당 USB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 수석은 "현재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일어났던 일을, 정상 간의 문제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성립되기 어려운 논리"라고 했다. "국익과 국민과 외교·안보 사항에 피해가 있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시선과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불가능한 주장"을 펼치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명운을 걸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최 수석은 "이거는 뭐 공개를 해도 정말 원전의 '원' 자도 없다"며 "아무 것도 안 나오면 응당한 책임을 가지고 (요구)해야 검토하고 공개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의 일부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보안을 전제로 해도 그 공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언론에 알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과 수교하고 대한민국과 관계를 하고 있는 국제사회 또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라며 이 역시 국민의힘이 스스로 지게 될 책임을 먼저 제시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 직후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장을 '북풍'과 같은 '색깔론'으로 규정한 것이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이 "매우 걱정하고 안타까워한다. 문제 제기의 내용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성립되기 어려운 이야기가 일종의 정쟁도 되고, 또 특히 지금 코로나와 또 민생이 어려운 것 등으로 인해 어려운 과정에서 이걸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다"며 "청와대나 대통령의 기억이나 상상이나 생각에도 미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밝히라고 하고 또 공격을 하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 수석은 "공개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한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제시를 해야 된다. 적어도 국민을 향한 사과와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재발방지의 방법과 약속까지도 야당이 제시를 해야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 수석은 전날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 국가원수를 이적행위라고 그것도 공당의 야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물론이려니와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규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이야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것은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검토할

빨링 빅토리아
누나식당/하숙
"탕" 전문식당
흑염소탕/영양탕
5692-9149
Palin Victoria Sec.67 Casa #1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난지원금 당정 또 '충돌'

여 "전쟁 나도 재정 따질텐가" 이낙연 "재정의 주인은 국민, 필요하다면 써야"..정태호·설훈 "홍남기 사퇴" 부글 홍남기 "재난지원금 발언, 절제된 것" 반대입장 고수..당정 논의 과정서 갈등 불가피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당정 갈등이 또다시 표출되고 있다. 보편·선별 지원 방안을 모두 담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당내에선 일제히 홍 부총리의 거취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고통 앞에서 정부·여당이 더 겸허해지길 바란다.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할 때가 됐다"며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다. 국민의 삶을 지탱해드리는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날(2일) 홍 부총리가 보편·선별 지원을 병행한 4차 재난지원금 제안에 대해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해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긋자 재정당국을 질타한 것이다.

당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홍 부총리를 향해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감정이 묻어날 정도로 여당 대표의 의견을 반박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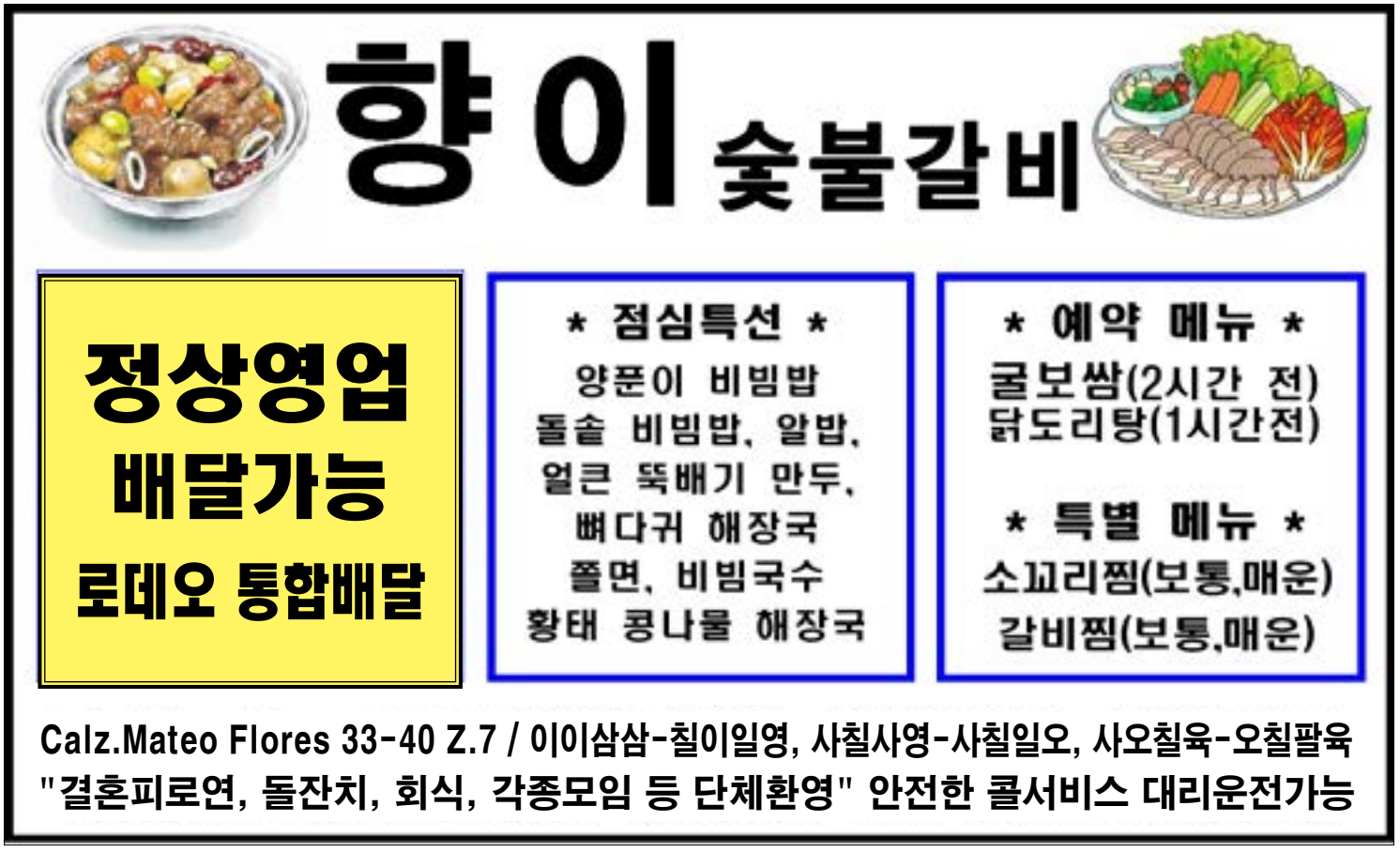
그는 "오늘이 입춘인데 춘래불사춘(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음)이란 말이 절로 나오는 안타까운 요즘"이라며 "정부·여당은 한 몸이다. 지금 위기를 넘기고 국민에게 봄을 돌려줘야 하는 정부·여당의 공동 책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급기야 당내에서는 홍 부총리의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홍 부총리의 재난지원금 관련 발언에 대해 "기재부 내부용 메시지로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며 "즉각 사퇴해야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제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고위원회의 참석자 중 한명인 정태호 의원은 회의에서 홍 부총리의 사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만류했다고 한다.

당내 중진인 설훈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가 민생 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어려운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것인지



는 알 수 없으나 '한가한 소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는 전쟁이 나도 재정건전성만 따지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곳간지기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인식이라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재정당국의 반대 입장에도 선별·보편 지원을 병행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대변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극심한 고통을 정부 재정을 통해 덜어드려야 한다는 이 대표의 연설 의지를 관철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최고위) 다수 참석자 의견으로 모아졌다"며 "앞으로 4차 추경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이 대표가 앞장서고 함께 당 지도부가 나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야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가 보편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당정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에도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당과 갈등 상황을 빚은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홍 부총리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재난지원금과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이 대표가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와 조금 다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확정된 걸로 전달이 될 까봐 재정당국의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SNS에 말한 것처럼 절제해서 잘 표현을 드렸다"며 "많이 숙고하고 절제되게, 정중하게 표현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당·정간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 방식과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고 재정여건 상 선별·보편 지원을 포괄한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당정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할 경우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추가하는 대신 각 부처 사업예산이 대폭 감액돼 지난해처럼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데다 예비비도 연초에 5조6000억원이 집행돼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올해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각 부처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들어냈고 지금은 각 부처가 1월부터 예산 조기집행을 서두르고 있는 단계"라며 "하반기에 사업을 하다가 집행이 부진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결국 4차 재난지원금은 국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영선 33.4%
안철수 27.1%
나경원 25.4%
가상 3자대결

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 여론조사
3자 대결시 與 후보 모두 오차범위 내 우세
박영선 상정시, 안철수와 격차 6.3%p
안철수와 나경원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

야권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오는 4월 서울시장 재보선이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을 가정했을 때, 팽팽한 접전 속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소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국면이 지속될 경우, 후보단일화를 요구하는 야권 지지층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 보궐 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재보선 3자 가상대결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3.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7.1%,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25.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박 전 장관은 40대(46.8%)에서 다른 후보를 크게 앞섰으며, 50대(39.9%)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18세 이상 20대(22.6%)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였다. 반면 안 대표는 18세 이상 20대(36.8%)와 30대(33.7%)에서 우위였고, 나 전 의원은 60세 이상(35.6%)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권역별로 박 전 장관은 자신의 과거 지역구가 있던 서남권(36.9%)을 비롯해 서북권(36.4%), 동북권(33.9%)에서 강세를 보였다. 안 대표의 경우 도심권(31.3%)과 동북권(31.8%), 동남권(28.5%)에서, 나 전 의원은 서남권(29.2%)과 동남권(28.8%)에서 각각 본인의 지지율 평균치 이상을 기록했다.

나 전 의원 대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상정했을 때의 결과도 박 전 장관 33.7%, 안 대표 27.0%, 오 전 시장 21.7%로 순위변화는 없었다. 박 전 장관의 경우 여전히 40대(45.3%)와 50대(38.2%)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 대표는 18세 이상 20대(35.9%)와 30대(33.1%)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60세 이상에서는 박 전 장관(31.6%)과 오 전 시장이(27.8%) 각축을 벌이는 양상이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평일 PM 2시~4시 5% 할인 (배달 출발시간 기준)

매주화요일 휴무 배달 (오전11시~오후8시)

중국집





술상셋트 400

탕수육 칠리탕수육	중 택1
+	
고추잡채 중국집잡채 누릉지탕	중 택1
+	
깐풍기(육) 라조기(육)	중 택1

술상셋트 600

탕수육 칠리탕수육	중 택1
+	
깐풍새우 깐쇼새우 칠리새우	중 택1
+	
양장피 유산슬 짬뽕홍합탕	중 택1

밥 류 ▶▶▶
볶음밥
짜장밥
짬뽕밥
잡채밥
야끼밥
잡탕밥
고추밥
중화비빔밥
마파두부밥
삼선볶음밥
유산슬밥
고기덮밥

요리류 ▶▶▶
탕수육
칠리탕수육
깐풍기·육
라조기·육
양장피
팔보채
유산슬
잡 탕
누릉지탕
칠리새우
깐풍새우
깐쇼새우
고추잡채
중국집잡채
짬뽕홍합탕

면 류 ▶▶▶
짜장면
간짜장
불짜장
쟁반짜장
삼선짜장
삼선간짜장
삼선쟁반짜장
유니짜장
고추짜장
짬뽕
불짬뽕
삼선짬뽕
차돌박이짬뽕
우동
야끼우동
삼선우동
울면
기스면
콩국수



쿠폰제실시

인스타그램 junggukjip

전화 2212-5639 / 2439-3508 36ave. 1-59 zona 7 colonia toledo

신성통상 니카라구아 소속 이스트모 법인

직원 채용 공지

*** 채 용 부 문 ***

1. 공장 생산관리 유 경험/남성 직원 1명
   (TARGET, GAP ORDER 생산관리)
   - 총괄 공장장 업무 SUPPORT 하는 생산 관리직
   - 25세~40세 (생산 관리 유 경험자)
   - 필수조건 : 스페인어 가능자 / EXCEL 사용 가능자

* 입사시점 : 2021년 2월
* 처우 : 급료 외 기숙사 제공(가족 동반시 주택보조 지원) 차량 유류비, 통신비 등
* 연락처 : 00-505-8806-3348 / yanghj@ssts.ca.com

권역별로 박 전 장관은 동북권(36.0%)과 서남권(35.8%), 서북권(33.8%)에서, 안 대표는 서북권(31.3%)과 동북권(28.2%), 동남권(29.6%)에서 지지율 평균치 이상을 기록했다. 오 전 시장의 경우, 도심권(33.5%)에서 타 후보와 비교해 우위를 보였다.

우상호 상정시, 세 후보 오차범위 내 접전
우상호와 안철수 격차 1.9%p로 초박빙
우상호와 나경원 격차도 4.9%p로 오차범위
40~50대 계층, 민주당 후보 지지세 확연

우상호 의원을 민주당 후보로 상정했을 경우, 격차는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순위는 그대로였다. 우 의원과 나 전 의원, 안 대표 3자 대결에서 우 의원은 30.4%, 안 대표 28.5%, 나 전 의원 25.5%였다.

연령별로 우 의원은 40대(44.7%)와 50대(38.9%)에서 상대 후보와 10%p 이상 격차로 앞섰다. 안 대표는 18세 이상 20대(38.3%)와 30대(36.0%)에서 강세였다. 나 전 의원은 60세 이상(34.9%)에서 다른 후보와 비교해 우위에 있는 모습이었다.

권역별로 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서북권(35.3%)에서 가장 높았고, 안 대표는 도심권(32.3%)에서 타 후보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우 의원 28.6%, 나 전 의원 29.9%, 안 대표 28.2%)과 서남권(우 의원 29.7%, 나 전 의원 28.8%, 안 대표 24.7%)에서는 세 후보 간 혼전 양상을 띠었다.

오 전 시장을 상정한 가상 3자대결에서는 우 의원 31.3%, 안 대표 28.6%, 오 전 시장 21.5%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우 의원은 40대(46.3%)와 50대(39.2%)에서 상대 후보를 앞섰으며, 안 대표는 18세 이상 20대(36.5%)과 30대(35.9%)에서 우위를 지켰다. 60세 이상(우 의원 27.6%, 오 전 시장 25.2%, 안 대표 24.3%)에서는 세 후보 간 격차가 거의 없었다.

권역별로 우 의원은 서북권(36.6%)과 동북권(32.6%), 서남권(30.9%)에서, 안 대표는 동남권(31.8%)에서 타 후보와 비교해 다소 간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오 전 시장은 도심권(25.7%)과 동남권(22.1%)에서 본인 지지율 평균치를 웃돌았다.

3자 구도, 후보교체에 따른 지지율 변동치 미미
박영선 33%, 우상호 31% 안팎서 유지
안철수 27~28%, 나경원 26%, 오세훈 22% 선

3자 대결 구도에서 특징은 경쟁상대의 교체에도 각 후보자 지지율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 전 장관은 국민의힘 후보의 변화와 상관없이 33%대의 지지율이 유지됐고, 우 의원도 31% 안팎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박 전 장관의 지지율을 우 의원과 비교하면 2%p 안팎으로 높았는데, 여권 지지층과 여성층에서 소폭의 지지율 상승이 나타난다.

이는 야권 후보도 마찬가지다. 나 전 의원의 경우 25.4~25.5%로 상대 후보 교체에 따른 변화폭이 없었고, 오 전 시장도 21.5~21.7%로 미미했다. 안 대표는 27.0%에서 28.6%로 국민의힘 후보와 비교해서는 변화폭이 있었지만, 크다고 하긴 어려운 수치였다. 다른 외부요인이 없다면 3자 구도 하에서 후보자의 변동은 큰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3.5%(무선 6%·유선 0.5%)로 최종 807명(가중 8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낙연 "악의적 보도는 범죄".. 언론개혁 입법 드라이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언론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언론개혁은 검찰개혁의 다음 과제로 계속해서 거론돼 왔던 것이지만 최근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보도를 계기로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를 더는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개혁 입법은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것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과 신뢰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노웅래 최고위원이 맡은 미디어 언론상생TF가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코로나19 백신과 방역대응 논란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이어졌을 당시에도 "터무니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보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언론개혁 관련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당에서 논의중인 언론개혁 관련 법안은 6개다.

우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이 가능토록 신현영 의원안, 정정보도시 문제가 된 기사와 같은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한 김영호 의원안, 언론중재위의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김영주 의원안 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게시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영동
한.중식 전문
정 상 영 업
포장 및 배달 됩니다

주소 : 11 Calle 5-08 Z.9 / 오후 9시까지 영업
전화 : 오영일팔-일일칠육/이삼삼일-삼사일사/이사사일-오이육육

판의 운영 중단 등 악성 댓글 대처 관련 규정을 만든 양기대 의원안과 불법·거지 정보 유포로 명예 훼손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윤영찬 의원안이 있으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도 포함시킨 이원욱 의원의 '형법' 개정안도 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이 같은 개정안들을 토대로 언론개혁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V논란에 北원전 진실 밝히라는 취지 희석 안 되길"

"다소 혼란 빚은 점 안타까워..더 할 말 없어"
"안철수·금태섭 3지대 단일화, 예상했던 형태"
1가구1주택 재산세 감면 등 보유세 공약 발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일 북한 원전 관련 산업부 문서의 'V'가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라 했다 논란이 된데 대해 "다소 혼란을 빚은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 드릴 말씀은 없다. 어제 밝힌 대로 이 일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거나 희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로서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본질은 문 대통령이 해당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북한에 앞으로 원전을 지원할 생각이 있는 지 등 국민적 의문점을 밝혀달라는 취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에 이뤄진 '제3지대 단일화' 합의에 대해 "우리당은 당대로 경선 진행해 최종 후보 정하고 그쪽 단일화해서 마지막에 경선하자는 단계적 경선안이다. 많이 예상됐던 형태"라면서 "경쟁주자로 열심히 뛸 분이다. 단일화 방법론이나 협상 절차 등은 당에 일임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재산세율 인하 ▲1가구1주택 재산세 감면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관련 공약을 소개했다.

그는 "더이상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전국은 물론 서울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란 이유로 과세표준이 상승해 보유세 부담만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2009년에 제정된 것으로, 부동산 시세가 달라지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과세표준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적용을 현행 6억원에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지역 중위 매매가격이 9억원을 육

박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시세의 70%만 반영해도 6억원이 훌쩍 넘어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에 따른 과세표준 금액의 상승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자는 공약도 담겼다.

주호영 연설 與 "비난 일색" 野 "간절한 호소"

민주·정의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 없어" 비판
국민의힘 "국민 심정 담은 간절한 호소" 극찬

여야는 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국민 심정을 담은 간절한 호소'라고 극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제히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 부재"라고 혹평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102명 국회의원을 보유한 제1야당으로 민생에 대한 고민과 책임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도 찾을 수 없었다"며 "연설은 '내 덕분, 남 탓'의 연속, 그저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과 힐난의 일색이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이날 구두 논평에서 "위기를 이겨내자고 선언하였으나 위기에 대한 진단은 부실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은 없이 관망만이 일색인 연설이었다"며 "제1야당으로서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 태도에 씁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가 제안한 '포스트 코로나 특위' 관련해선 "코로나 이후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미래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국가 책무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정의당이 앞서 제안한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위'를 통한 민생 법안 제정에 있어 협력을 요구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입춘(立春) 새봄, 국민의 봄을 여망하는 국민들 심정을 담은 야당 원내대표의 간절한 호소였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가 정부의 방역 대책 및 백신 확보 실패로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통을 올해도 겪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지난해 모바일 쇼핑 거래액, 처음으로 100조원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1조1000억원이었다. 전년보다 19.1% 증가한 것은 물론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래 최대치다.

지난해 소매판매액 가운데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 비중은 27.2%였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상품군별로 보면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집콕' 생활이 길어진 영향이 더욱 도드라진다. 통계청 측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생활용품과 음식료품 위주로 온라인 거래가 늘었다"고 했다.

배달음식 주문 등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가장 크게 늘었다. 1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8.6% 증가했다. 음식료품(+48.3%)과 생활용품(+44.1%) 거래액도 대폭 늘어났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문화 및 레저서비스(-69.3%)와 여행 및 교통서비스(-53.3%)는 거래액이 크게 감소했다.

작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0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5% 증가했다. 연간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역직구'는 2014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작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6조원으로 전년 대비 0.6% 줄었다. 통계청 측은 "중국에서 화장품 판매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면세점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해외 직접 구매액(직구액)은 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갑질' 애플코리아, 1천억 내고 제재 피해 소비자도 수리비 혜택

공정위, 제재 대신 19개월만에 자진시정안 최종 승인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이통사)에 떠넘겨온 행위와 관련해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1천억원대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승인했다. 이통사와 소비자가 각각 보조금과 수리비 부담을 일부 덜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당국이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3일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그동안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아이폰 소비자의 수리비 일부 할인, 휴대전화 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 등을

제시한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지난달 27일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불공정행위로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이 공정위에 먼저 자진시정 계획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는 제도다.

애플코리아의 자진 시정안은 크게 이통사들에 대한 '갑질 관행' 개선과 업계 상생지원금 마련으로 나뉜다. 우선 이통사들은 애플코리아와 계약에 따라 아이폰에만 높은 금액을 지원했던 최소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통사들이 부담하던 아이폰 광고비용도 일부 조정하고, 이 돈의 사용내역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보고받기로 했다. 이전까지 애플코리아가 허용하지 않던 마케팅은 아예 할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광고 방식 이외에 다른 마케팅 계획도 허용된다. 일방적으로 이통사들과 거래를 끊을 수 있었던 계약해지권은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상생지원금은 1천억원 규모다. 중소 스마트폰제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400억원)과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 인력인 '디벨로퍼' 아카데미(250억원)에 모두 650억원이 쓰인다. 애플은 연구개발지원센터와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일본, 중국,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등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 설치되는 건 처음이다.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이통사가 운영하는 수리센터에서도 애플수리센터와 같은 할인혜택(10%)을 적용하고, 애플케어서비스 가입할인 또는 기존 사용자에 비용 환급 등으로 250억원이 쓰인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안대로 조처하는지 3년간 점검하게 된다.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하루 2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동의의결을 취소한 뒤 다시 제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애플코리아의 불공정행위 사건처리 기간이 너무 긴데다, 동의의결제도로 '갑질'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이번 동의의결안은 2019년 6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제도 신청한 뒤 최종 결정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다. 공정위가 승인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 상당수가 자사 마케팅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인데다, 이통사들이 개별적으로 애플과 새 계약을 맺을 때 다시 '갑을 관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동의의결은 유상수리 비용 10%를 할인해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처음 포함됐다"며 "동의의결제도가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인 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치는 등 일방적으로 갑질 기업에 유리할 수 없도록 엄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이통사 입장에서는 아이폰 광고비와 보조금 비용이 실질적으로 줄고, 우월적 지위를 가진 애플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며 "애플코리아의 상생안이 자사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MISO
미소 (ZONA 7 점 오픈)

순대, 해물, 숯불 전문 / "활어회" 개시
최상급의 재료만을 사용하여 정성을 담아 만듭니다
순대국, 김치순대, 순대곱창볶음, 내장탕
쭈꾸미 연포탕, 쭈꾸미 찜, 쭈꾸미 볶음
매운오리불고기, 냉채족발, 돼지머리수육

전화번호 : 4150-3788 (박상민 클리닉 맞은편 위치합니다)
C.C. Mateo Xpress, 36 Ave 1-74 local 15 Zona 7 / 매주 화요일 쉽니다

사 회

정부 "재확산 조짐 아냐 방역-일상 딜레마 해결 전 방역 지켜야"

1주간 국내발생 확진자 2683명..일평균 383.3명

정부는 최근 일상 공간과 의료기관에서 전파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추세에 대해 재확산 조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방역과 일상 회복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전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병원 등에서의 감염은) 재확산의 조짐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병원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확산의 선행 지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는 2683명, 하루 평균 383.3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이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 400~500명이다. 2단계 기준은 300명 이상이다.

권역별 일평균 확진자는 ▲수도권 250.1명 ▲충청권 22.4명 ▲호남권 36.1명 ▲경북권 29.9명 ▲경남권 38.0명 ▲강원 6.0명 ▲제주 0.7명이다.

60대 이상 일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에서 72.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남권 15.6명, 호남권 8.1명, 경북권 8.0명, 충청권 3.6명, 강원 2.0명, 제주 0.1명 순이다.

그러나 저번 주말부터 300명대였던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총 467명이다.

현재 직장, 의료기관 등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전파되고 있다. 충남도와 당진시에 따르면 한국육계유통 관련 확진자는 지난 2일 11명, 이날 21명 등 32명이 발견됐다. 서울 한양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54명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여전히 하루 400명 내외의 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IM선교회발 집단감염 확산세는 멈췄지만,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의료기관, 교정시설 집단감염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어제(2일) 같은 경우 육류업체 등에서의 집단감염 사례와 기존에 발생한 사례들이 지속 발견되면서 환자 수 증가 통계에 같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주말 검사량 감소 효과가 없는 오늘(3일) 0시 기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통계라 볼 수 있다"면서도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추세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주간 평균 환자 수를 평가하지, 하루하루 환자 수를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유행 추세를 판단할 수 없는 만큼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바이러스 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겨울철, 실내공간 활동이 불가피하게 계속 이뤄지는 점 등으로 생활공간 곳곳에서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육가공업체에서도 발생했지만, 최근에 의료기관, 태권도장을 비롯한 여러 학원 등 일상생활 여러 곳에서 작은 규모의 감염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적인 조치를 통해 최대한 막겠지만, 역학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방역과 일상 회복의 딜레마 해결 방법을 찾을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2일 하루 동안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4만5301건의 검사가 진행됐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3만1391건을 검사해 확진자 80명을 찾았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9곳(수도권 131곳, 비수도권 18곳)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3일 0시까지 총 175만 111건을 검사했으며, 의료인력 454명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2일 기준 56곳 8402개 병상이 확보됐다. 이 중 가동률은 25.9%로, 6230개 병상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 확보된 병상 7134개 중 24.1%가 가동중이며, 5415개 병상이 비어 있다.

중등증 확진자가 입원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8588개의 가동률은 31.1%로, 5917개 병상이 이용 가능하다. 수도권에는 2493개 병상이 비었다.

준중환자 병상은 425개다. 가동률은 54.6%로, 193개 병상이 남았다. 수도권에는 109개가 비었다.

중환자 병상은 768개 중 485개 병

아파트 세 놉니다
Edificio Di Fiori
Apartamento
Calz. Mateo Flores
월 $ 875 / 1층
방 2개(옷장+화장실)
거실 / 주방 / 정원 (90mts²)
세탁실 / 창고 / 주차장 2대
4816-3528, 5401-0485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상이 비어 있다. 이 중 수도권에는 263개 병상이 남았다.

정부는 이날부터 65세 이상 장기 입원자가 많은 한방병원, 재활병원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고령층이 많이 입원해 있는 병원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법원,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보석 허가 오늘 석방

법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보석을 허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측 청구를 받아들여 이날 보석을 결정했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 구속 기간은 4일까지다. 피고인 구속 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재판부는 별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특별한 변수가 없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이날 중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 이후 202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2000만원과 거주지 제한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출국하거나 5일 이상 여행할 땐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구속된 건 유감"이라며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제보자X' 지모씨 통화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등 '권·언유착' 정황을 부각하겠다"고 주장했다. 채널A 진상보고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공모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측근인 지씨와 접촉을 한 전후로 연락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맷하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는 현재 압수된 상태지만 포렌식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주범, 징역 12년 · 벌금 1800억 선고

'라임 투자 기업' 주가조작 일당에



순풍식당

포장 및 배달 합니다.
(로데오 통합 배달)

위치 : 아람정육점, 농원식품 옆
32ave 1-34 Z.7 utatlan 1
5577-7686, 2508-5635

순대국밥전문	곱창전골
순대곱창볶음	제육볶음
순대 떡볶음	김치찌개
야채 불고기	된장찌개
북어 콩나물	육 계 장
소머리 국밥	설 렁 탕
해물 순두부	삼 겹 살
오삼 불고기	만 두 국
쭈꾸미 볶음	술 국
쭈꾸미 해물탕	순 대
돼지머리 주문	찐 만 두
머리고기	홍 어 회

대부분 실형 선고
주범에 징역 12년·벌금 1800억원.."조직·계획적 범행"
"자금 흐름 왜곡·시장 신뢰 훼손..국민 모두의 손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이 자본시장에서의 정당한 자금 흐름을 왜곡시켰고, 투자자들의 증권 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시켜 건전한 투자자의 증권 시장 이탈을 가져왔다며 1800억원의 벌금형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이번 범행을 주도한 이로 꼽았지만,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대부분 징역형과 함께 최대 900억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함께 내렸다.

이씨 일당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라임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머티리얼즈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회사 주식 가격을 조작해 시세 차익으로 83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누락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기업 인수 단계부터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 등을 주요 자금으로 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대량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허위로 외관을 만들었다"며 "이후 이를 이용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부양하고, 주식을 전부 매도해 이득을 취했는데, 이는 통상적 기업 범죄와는 궤를 달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인맥을 통해 외국 유명 정치인, 기업가를 섭외해 국내에 초청하는 등 화젯거리를 만들고, 해외 기업과의 형식적인 업무 협약 체결 등을 마치 일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와 공동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렇게 만든 허위 보도 자료가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회사 주가는 올랐다.

이들은 여기에 페이퍼컴퍼니나 차명계좌 등으로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면서 회사 주가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되팔거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매도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표적으로 이씨 등이 에스모 주식을 라임 펀드에 매각해 취득한 부당 이득이 577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과 같이 전혀 사실무근의 것이라도 여러 군데서 들려오면 믿지 않을 수 없다"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외국 회사에 대한 그럴듯한 정보가 언론을 통해 들려오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새 기술에 투자한다는 기대에 주가마저 들썩거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 회사에 호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금융경제 발전을 위해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이 필수적인데, 이번 범행은 정당한 자금 흐름을 왜곡하고, 증권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러한 점은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의 손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 공범 중 이번 범행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강모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00억원의 형을 내렸다. 또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900억원을 내라고 선고했다. 공범 7명에겐 징역 4년~1년 6개월에 벌금 900억~1억원이 선고됐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이들도 각각 1명씩 있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현재 수배 중인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모 회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공부 안 해 배달 일" "딱 봐도 사기꾼" 어학원 강사 폭언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서 20분 분량 통화녹음 파일 공유·확산
배달기사 업체 업주가 올려..배달원노조 "곧 입장 발표"

서울 동작구의 한 어학원 강사가 배달대행업체 업주에게 "배달원은 사기꾼", "공부 못하니까 할 줄 아는 게 배달밖에 없다"는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이틀을 보내고 글을 쓴다"며 강사 B씨와 통화한 2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올렸다.

A씨는 "어제 우리 (배달) 기사 중 한 명이 너무 황당한 일을 겪고 억울해해서, 여기에 글을 올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고 싶다"고 운을 뗐다.

B씨는 A씨에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으니까 배달 일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회사에 인정 못받고 그짓 하겠냐", "너넨 딱 봐도 사기꾼이다. 문신해놓고 그런 애들", "기사들 그냥 오토바이타고 돌아다니고 음악이나 신나게 들으면서 한건에 3800원 버는 거 아니냐" 등 막말을 쏟아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커피를 주문한 학원 강사 B씨가 주소를 잘못 기재한 바람에 추가 배달비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배달원은 처음 잘못 기재된 주소에 도착해 B씨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8분 가량 지나 통화 연결이 됐고, 배달원은 B씨가 있는 학원으로 가 배달을 완료했다.

배달원은 학원 강사 B씨에게 추가 배달비 3000원을 요구했으나, B씨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 바쁘다며 내려가 기다리라고 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본가

RESTAURANTE
BONGA

생일 모임예약시
미역국 준비해 드려요!!



전골류
샤브샤브
부대찌개
동태전골
불고기전골
만두버섯전골
소고기버섯전골
오삼불고기전골
어죽탕국수전골
돼지김치두부전골

안주류
아구찜
두부김치
춘천닭갈비
오징어볶음
골뱅이무침
오리주물럭
김치고등어찜
김치돼지갈비찜

육류
(솥뚜껑구이)
꽃등심
안창살
LA갈비
삼겹살
돼지갈비
오리주물럭

찌개류
꼬리곰탕
된장찌개
청국장
육개장
어죽탕
순두부찌개
돼지김치찌개

국수류
냉면
칼국수
잔치국수
콩국수

덮밥류
제육덮밥
불고기덮밥
오징어덮밥

예약메뉴
오리백숙
닭백숙
보쌈, 족발



오토바이 배달

맛있는 김치 주문받습니다

2445-6050, 3147-7921 / 34 AVE. 1-36 Z. 7 (NAIS 식당 건너편 위치)
본가 옆 나이스 주차장 사용가능 / 로데오 합동 배달서비스 이용 가능

RV4 DESARROLLOS

'오픈하우스'에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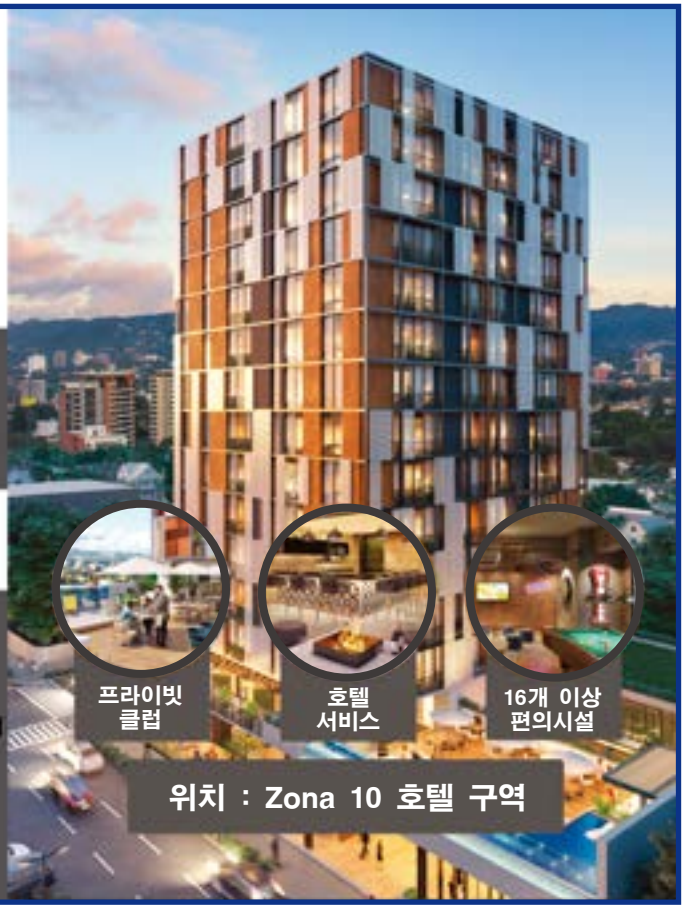
eon
SMART URBAN LIFE

2021년 2월 6일(토), 7일(일)
오전 9시~오후 5시

음식과 음료수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예약 문의 2419-4613

www.eon.com.gt
/eonapartamentos @eonapartamentos



1층 학원 밖에서 5~10분을 기다리던 배달원은 다른 주문을 배정받아 시간이 촉박해지자, 다시 학원으로 올라가 계산을 먼저 해달라고 요청했고 강사는 짜증섞인 말투와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계산을 미루다가 결제했다.

이후 강사 B씨는 배달대행업체로 전화를 걸어 막말을 쏟아냈다. A씨는 "다른 주문을 처리하는 와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녹음을 했다"며 "듣자듣자하니 도가 지나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끝으로 "인간으로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저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그렇게 우리가 실수를 한 건지 궁금하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녹음파일에 따르면 B씨는 배달원이 추가 배달비를 재차 요청하는 상황에서 '카페에 보내줘야 한다'고 말했는데, 배달원 본인이 갖는 배달비를 카페에 줘야 한다고 거짓말한 것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B씨는 "배달원이 서 있다가 학생들이 코로나19라도 감염시켰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나"라고도 주장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B씨가 근무하는 학원과 본사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배달 기사들의 노동조합인 라이언유니온은 "저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공개돼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3일 오후 해당 업체와의 미팅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대후보 40년전 성범죄 의혹 제기 '피켓시위' 3명 집유 · 벌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의 40년전 성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피켓을 걸고 선거운동을 한 3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B(57·여)씨와 C(58·여)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명령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중구 출마자의 선거 운동원인 이들은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해 4월 13일 경쟁자인 박성민(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의 40여년 전 성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가 40여년전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그 내용이 중대하고 악의적인 점, 선거에 임박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초범이고, 동종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둘뿐이던 세상 무너졌다" 모텔 방치 사망 피해자 여자친구의 편지

"5년 짝사랑이 이제야 사랑이 됐는데, 사계절도 함께 보내지 못하고 오빠를 보내버린 나는 슬픔을 달랠 틈도 없이 사건 해결에 뛰어들었고 가해자들의 추악함을 마주했어"

부산에서 몸싸움 도중 쓰러진 남성을 모텔로 옮겨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의 피해자 여자친구가 쓴 편지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여자친구 A씨는 글에서 먼저 지난해 10월 사건으로 숨진 B씨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 충격과, B씨를 향한 애틋함을 드러냈다.

A씨는 "3달 전 눈앞에 차갑게 식어있던 오빠(숨진 B씨)의 몸을 만지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뛰쳐나가 119를 부르던 그 날. 소방관에게 제발 살려달라며 무릎 꿇고 빌었던 그 날 오빠와 나 둘뿐이던 내 세상은 무너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학교 선배던 오빠는 내 첫사랑이었다. 오빠가 우연히 같이 탄 수련회 버스에서 '너 너무 귀엽다'고 말한 그 한 마디를 6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한다"며 "고등학생이 되며 만날 길이 없었지만, 지난해 4월 우연히 다시 만나 우리는 연인이 됐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됐다"고 말했다.

또 "오빠는 늘 자기 자신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살았다. 우산이 하나밖에

대성 어패럴 (니카라과) 사 원 모 집

함께 일할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사무직 신입사원 (0명)

(영어·스페인어 가능자)

bylee409@gmail.com

505-8851-4989

없어도 비를 맞고 가는 할머니에게 우산을 건넬 만큼 마음씨가 착했다"며 "나는 그런 오빠와 결혼하고 싶었고 함께 할 미래를 꿈꾸며 너무 행복했지만, 오빠는 이제 내 곁에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 이후의 고통과 가해자를 향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A씨는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함께 했을 크리스마스와 연말에도 나는 심리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했고, 오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사무치게 미워하며 엄벌탄원서를 받으러 다녔으며, 난생처음 가본 추모공원에 걸린 오빠 사진을 보고 목놓아 울어야 했다"며 슬픔을 드러냈다.

이어 "가해자 다섯 명은 오빠의 아르바이트 동료였고, 오빠는 '밤 시간대가 무섭다'는 동료를 위해 시간을 바꿔 줄 정도로 그들을 위했지만 그들로 인해 오빠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됐다"며 "가해자들은 장례식장에 와 '폭력은 전혀 없었고, 자기 혼자 머리를 부딪친 것 같다'며 유족을 우롱했지만 폐쇄회로(CC)TV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주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영상이 밝혀지자 폭력을 인정하며 '술을 먹고 언성이 높아져 때렸고 잠을 자길래 모텔에 재웠다'고 진술했지만, 가게에 있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언성이 높아진 적 없었다'고 했다"며 "영상에서 오빠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가해자가 갑자기 오빠를 잡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시작했다. 한 번도 누구와 싸워본 적 없던 오빠는 때리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동료 모두 오빠가 쓰러진 것을 봤고, 의식이 없음을 인지했지만 그 사람들은 오빠를 그저 눕혀놓고 '어쩌지'하며 모의를 하고 있었다"며 "이후 그들은 오빠를 짐짝처럼 옮겼고 그러다가 떨어트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연락이 끊겨 이상함을 느낀 내가 오빠에게 전화 수십 통을 했지만, 오빠 폰을 가지고 있던 가해자 중 한 명은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이 전화만 받았어도 오빠는 지금쯤 내 곁에 있을까?"라며 "그 순간 내가 달려나가 오빠를 병원에 데려갈 수라도 있었다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런 생각을 한다. 다음 날 아침에야 온 연락을 받고 뛰어간 곳에서 나는 이미 숨이 멎어 온몸이 굳은 오빠를 마주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일행 4명 모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가해자들이 첫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날에서야 '사과하고 싶다'며 연락이 왔다. 오빠에게 미안해서가 아닌, 어떤 큰 벌을 받게 될지가 무서웠던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음 달 또 한번의 재판이 열린다. 그때는 오빠가 조금이라도 덜 억울할 수 있게 다섯 명 모두 응당한 벌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게는 전부였던, 그리고 너무 사랑했던 우리 오빠.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다 할 테니 오빠는 그곳에서 먼저 행복해주라"라며 "나도 가해자들이 마땅한 벌을 받으면 꼭 행복해지겠다고 약속할게. 우리 꼭 다시 만나자"라며 글을 맺었다.

지난 1일 오전 게시된 이 글은 이틀만에 공감 2만 건과 댓글 8천 개, 공유 2천 건이 넘는 등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더 이슈화돼 꼭 최고형을 받았으면 한다", "너무 안쓰럽고 화가 나면서 슬프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범죄자들은 꼭 죗값 치르길 바란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함께 술을 마시던 C(23)씨로부터 폭행당해 후두부 골절상 등을 입고 의식을 잃었지만, 병원이 아닌 인근 모텔로 옮겨졌다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며, 당시 B씨를 모텔로 옮겨 방치한 일행 4명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PLASTIC UNI, S.A.

SINCE 1999

Recycled Content Standard (RCS) 인증

OPP TAPE 2" / 3" CLEAR 각종 색상 테이프
POLY BAG (PE / PP / HDPE)
TAG PIN (투명 / 흑색 / 실크)

TEL : (502) **육육사사-삼삼영영** [PBX]
FAX : (502) **육육삼삼-팔삼사육**
CEL : (502) **오사이삼-사삼오팔**

plasticuni@pu.com.gt
3ra. Ave. lote 11 Grupo Zeta la Union ca-9
Sur Amatitlan, Guatemala

ALFAPLASTIC, S.A.

의류용(긴급 선적 발주 받습니다)　　산업용
식품포장 등 상업용　　농업용

ISO 9001 인증 진행중



농업용



마트용 롤백



의류용



쇼핑백

TEL: 6610-0400/ 0401
CEL: 4081-0552 이 상경 (상업, 산업, 농업용 담당)
5528-2018 이 석현 (의류, 원단등 마낄라 담당)
E-MAIL: venta@alfaplasticgtm.com (상업, 산업, 농업 제품)
alfa2@alfaplasticgtm.com (의류, 원단등 마낄라 제품)
km 16.5 Carretera a Villa Canales, 2A Calle 1-44
Col.Los Alamos, Zona 6 de San Miguel Petapa, Guatemalal

국 제

러의 실수?..백신 92% 효능, 부작용 없고 유통 쉬운데 10달러

"부실 비판 받아왔던 '스푸트니크 V' 예상보다 훨씬 우수함 증명"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이 92%에 달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며, 냉장보관이 필요 없어 유통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값도 한번 접종에 10달러(1만1000원) 정도로 저렴하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백신의 효능이 국제 의학저널 '랜싯'에 실린 동료 검토를 통해 이 같이 증명됐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푸트닉 V를 개발한 가말리아 연구소의 데니스 로구노프 부소장이 이끄는 연구진은 "이번 결과는 자원봉사자 1만9866명(25%는 위약 투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토대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과학자들은 임상 개시 이후 코로나19 증상이 보고된 사례는 스푸트닉 V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16건, 위약군 중에서는 62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1일 간격으로 2차례 투여된 스푸트닉 V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1.6%의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한다.

전문가들은 전세계는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스푸트닉 V라는 코로나19와 싸울 또 하나의 효과적인 무기를 얻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언 존스 리딩대 교수와 폴리 로이 런던 위생 열대의학 대학원 교수는 "스푸트닉 V 백신 개발은 급박하고, 부실하고, 임상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번에 보고된 임상 결과는 분명하고, 예방 접종의 과학적 원리도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스푸트닉 V 백신은 각각 10 달러(1만1000원)가 드는 2 회 접종이 필요하다. 스푸트닉 백신은 특히 냉장보관이 필요하지 않아 유통에 큰 강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접종에 들어갔으며, 전세계 약 50개국이 러시아 백신을 사전 주문했다. 이중 알제리, 헝가리, 이란,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12개 국가에서 스푸트닉 V 백신의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블룸버그 "한국, 가장 혁신적인 나라.. 美 11위, 日 12위"

미국 경제전문 통신사 블룸버그가 한국을 전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꼽았다.

블룸버그는 '2021 혁신지수(Bloomberg Innovation Index)'를 산정한 결과 한국이 1위에 올랐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위였으며 블룸버그 혁신지수가 발표된 9년 동안 7번 1위를 차지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연구개발(R&D) 비용, 첨단 기술기업들의 집중도, 생산능력 등에 가중치를 두어 국가별로 점수를 매긴다. 한국은 이번에 90.49점(100점 만점)을 받았다. 우리나라와 2위인 싱가포르, 7위인 이스라엘을 제외한 10위권에는 유럽 국가들이 포진했다.

블룸버그는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이유를 R&D 및 제조업의 강세, 특허 관련 활동 증가라고 발표했다. 이경묵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R&D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고하다"며 "한국은 기술력을 갖춘 일본과 인건비 경쟁력을 갖춘 중국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2위, 일본이 12위에 올랐다. 싱가포르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 투입, 제조업 경쟁력, 세계 순위가 높은 대학들의 존재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대 경제강국인 미국은 11위, 중국은 16위로 10위권 밖에 머물렀다. 미국의 경우 대학들의 명성에 비해 고등교육의 질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입 제한 정책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수가 줄어든 점이 고등교육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이 순위에 영향을 주었다.

멕시코, 크리스티에 "우리 고대 유물 경매 중단하라"

멕시코 정부 "경매 품목 30여점은 우리 문화유산..위조품도 있어"

경매업체 크리스티가 프랑스에서 멕시코 지역 고대 유물의 경매를 예고하자, 멕시코 정부가 반발하며 경매 중단을 촉구했다.

멕시코의 문화재청격인 국립인류학연사연구소(INAH)는 2일(현지시간)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크리스티 파리가 오는 9일 경매에 부치는 물품 중 일부가 "멕시코의 문화유산"이라고 말했다.

디에고 프리에토 INAH 소장은 "국가의 문화유산은 거래돼서는 안 된다"며 경매 중단과 문화재 반환을 요구했다.

크리스티 파리는 '케찰코아틀 : 깃털 달린 뱀'이라는 제목으로, 스페인 정복기 이전 멕시코에 존재한 아스테카, 마야, 톨텍, 미스텍 문화 등의 유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명지병원 진료협약에 대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말에 교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명지대와 과테말라 한인회가 맺은 진료 업무 협약식에 대한 세부 항목 협상이 일부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에 명지병원에서 제시하였던 건강 검진 항목에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항목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항목을 공통 검사 항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검진 비용도 서울 내 의료원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 협상을 진행한 결과 명지병원에서 이를 수용하여 최종 합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강검진합의안에 대한 Q&A입니다.

1. 과테말라를 위한 건강검진 제안서중 100만원 건은 국내 일반인 검진시 얼마정도 하는 검진인지요?
>>>일반 검진 시 300만원입니다.과테말라 교민 분들께 특별히 적용되는 할인 금액입니다. (국내 타 종합병원의 검진비용과 동일, 페이스북의 사회알림방에 올린50만원, 80만원, 100만원 팩키지의파일에서상세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2. 인천공항에서 병원까지 픽업서비스는 가능한가요?
>>>검진과 진료를 위해 본원에 방문하는 경우 미리 예약하시면 공항에서 병원까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3. 숙박이용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월 이후부터 예약하면 가능한것인지요?
>>>가능합니다. 숙박이용료는 1인당 1박에 10만원입니다. (일반 검진자적용가 30만원상당)

4.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과테말라교민이라는 증명 서류는 무엇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한것인지요?
>>>과테말라 한인회에서 발행한 서류가 있으면 위 내용들이 적용 가능합니다.

아울러,화상진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MJ Virtual이라는 앱을 통해서 시행할 예정이나 현재시스템구축중에 있고, 1월말 완료될 예정입니다.시스템구축이 완료되면 안드로이드와 애플스토어에서 MJ Virtual 앱을 설치하여 여권번호 또는 한인회코드를 입력하여 이용할수 있게 됩니다.진료비용은 1회에 $25이며 앱 내에서 PAYPAL로 결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시스템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화상진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지병원 진료합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의 "사회알림방" 에 게시할 예정이며,기타문의사항은 한인회이메일haninguate@gmail.com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재 과테말라 한인회
Asociación de Coreanos en Guatemala

물 39점을 경매한다. '케찰코아틀'은 아스테카 문화의 뱀 신이다.

INAH는 경매 품목 중 멕시코 지역 문화나 문명과 관련 있는 것이 33점이며, 이중 3개 유물은 위조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멕시코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물품 중엔 서기 450~650년 무렵의 테오티우아칸 석제 가면도 포함돼 있다. 크리스티 웹사이트엔 경매 추정가가 최고 55만 유로(약 7억4천만원)로 책정됐다.

INAH는 이 가면에 대해 "고대에 제작된 것이 아니라 멕시코 전문가가 멀지 않은 과거에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INAH는 멕시코 검찰에 이번 경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프랑스 주재 대사를 통해 프랑스 정부에도 경매에 항의하는 멕시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멕시코는 1972년 이후 문화재의 반출과 매각 등을 법으로 금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해외에 있는 멕시코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프랑스 경매업체 밀롱의 멕시코 고대 유물 경매를 앞두고 법적·외교적 채널을 동원해 경매 중단과 유물 반환을 촉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아스테카 문명 여신 조각상 등 경매 물품 다수는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바이든, 2100조원 부양책 고수 민주, 단독처리 착수

민주 상원 지도부와 비공개 통화 "공화 역제안 부양책 불충분"..원안 신속 처리 주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을 계속 지지하면서 민주당에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점심 시간 민주당 상원 지도부와의 비공개 통화에서 당초 자신이 제안한 1조9000억 달러의 대규모 부양책을 밀어붙일 것을 요구했다고 다수의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는 재정 적자를 우려하며 3분의 1 규모인 6180억 달러(약 690조원) 부양안을 역제안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만난지 하루 만의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의원들을 2시간여 동안 면담하고 조정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통화에서도 공화당의 제안에 일부 열려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통화에 참여한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부양책이 너무 작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리고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직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1억9000억 달러 부양안을 지지한다"면서 "공화당의 제안이 "불충분"하며 "작은 규모의 부양안 위험이 큰 규모의 부양 위험보다 크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지원이 충분치 않을 때 야기되는 구제 부족과 경제 여파가 재정 적자 위험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규모 부양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하원에 이어 상원은 이날 2021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대한 절차 투표에서 50대 49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의회는 1조9000억 달러 경기부양책을 포함한 22억 달러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공화당이 반대할 것에 대비해 예산조정권도 행사할 방침이다.

원래 예산안을 가결하려면 60표가 필요하지만 예산조정권을 행사하면 개별 예산안을 각각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공화당과 50석 동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동률일 경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돼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게임스톱 반란 이끈 유튜버 하루 151억원 날려

게임스톱 60% 하락..여전히 매도는 안 해
5달러일 때부터 매수해 개미 투자자 전설로

미국 개미 투자자들의 게임스톱 집중 매수를 이끈 30대 유튜버가 주가 폭락으로 하루 사이 백억원대를 날렸다.

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키스 길(34)은 이날 하루에만 게임스톱 베팅으로 1360만달러(약 151억원)를 잃었지만, 여전히 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스톱 주가는 이날 60% 내린 90달러에 마감했다. 시간 외 거래에서도 5%대 하락세다.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등이 개인 투자자의 게임스톱 매수를 제한한 이후 게임스톱 주가는 연일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물간 기업으로 인식되던 비디오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은 최근 미국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다.

개미 투자자들이 애용하는 레딧 증권방 '월스트리트베츠(WSB)'에서 힘을 합친 개미들이 게임스톱 매수에 나선 결과 이 종목 주가는 폭등했다. 연초 18달러 수준이던 게임스톱 주가는 지난주 한때 1600% 넘게 올랐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에 나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한진 인터내셔날



▶미싱 부속 판매 ▶각종 소모품 판매 ▶ 각종 바늘 판매
▶패턴지, 마카지 판매 ▶패턴포마 아크릴
미싱부속 및 모든 소모품 전 지역 배달
36Ave "A" 3-46 Zona7 El Rodeo 카톡ID : monica7890
E-mail : hanjinter1206@hotmail.com , hanjinguate77@gmail.com
이사삼사-영칠사삼, 이사삼사-일팔오구, 오이영팔-영삼이이, 삼영삼육-이삼칠영

섰던 월가 헤지펀드들은 수조원대 손실을 봤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한 이후 싸게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매사추세츠 상호 생명보험사 마케터 출신인 길은 이 사태에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게임스톱 매수 포지션을 고수한 그는 데이 트레이더의 전설이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길은 WSB에서 'DeepF—ingValue'란 필명으로 활동한다.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32만명을 거느린 '포효하는 고양이(Roaring Kitty)'란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자 WSJ 인터뷰에 따르면 길은 게임스톱 주가가 5달러선을 맴돌던 2019년 6월부터 게임스톱을 사들였다. 당시 게임스톱은 별다른 호재가 없는 회사였다. 하지만 그는 최신 비디오게임 콘솔로 고객을 끌어들여 재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1년 넘게 레딧에서 게임스톱 수익 현황을 공개해왔다. 그는 이것을 'GME(게임스톱 종목코드) YOLO('인생은 한번뿐'의 영어 약자) 업데이트'라고 부른다.

그가 올린 주식거래 내역을 보면 지난달 27일 하루 동안 2000만달러(약 220억원) 수익을 올렸다. 다음날에는 1500만달러를 날렸다.

6개월 전부터는 유튜브에서도 게임스톱을 홍보했다. 지난달 22일 길이 게임스톱 거래와 관련해 올린 7시간 분량의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조회수는 65만건을 기록했다.

많은 투자자가 게임스톱을 향한 길의 지지가 투자 업계를 뒤집어놓은 이번 사태의 시초라고 말했다.

한 레딧 사용자는 길이 올린 게임스톱 수익률 현황 게시물에 "당신은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게임스톱을) 매수할 뿐 아니라, 보유하도록 설득했다. 당신은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 수천명의 인생을 바꿔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길은 WSJ 인터뷰에서 월가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려는 큰 뜻을 가지고 게임스톱 주식을 산 건 아니라는 취지로 밝혔다.

그는 의회, 헤지펀드, 미디어 및 수십만명의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 행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은 선동가가 아니며, 주목받지 못하는 주식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런 소매 투자자들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적반하장'
일본, 한국 폄하하다가 '이웃국' 격 낮추자 발끈

'2020 국방백서' 내용 중 일본의 책임 지적 부분 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위안부 만행 부정 매년 반복하면서

일본 정부가 2일 발간된 한국의

2020년판 국방백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관련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호도했다는 것이지만 외교, 방위 등 각종 정부문서에서 독도에 대한 자국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과거 위안부 만행을 부정하는 한편 이웃나라로서 한국의 격(格)을 낮추는 행태를 거듭해온 것은 일본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방위성은 2일 주일본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한국 국방백서의 내용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는 뜻을 전했다.

국방백서에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 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시카와 다케시 방위성 보도관은 기자회견에서 "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양립하지 않는 내용이 기술됐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상황을 포함해 일한(한일), 일미한의 협력은 중요하다. 협력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해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바뀐 데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자국 방위백서에서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 협력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데 대항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방백서의 일본 관련 기술은 2018년판에서는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였지만, 2020년판에서는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나라'로 바뀌었다. 교도통신은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을 이유로 일본에 대한 표현을 이웃국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일본은 총리·외무상 연설,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을 통해 영토 및 과거사 관련 도발을 거듭해왔다.

당장 지난달만 해도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만 지칭하며 양국 관계를 의도적으로 격하시킨 바 있다. 아베 신조 총리 때인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으나 1년 만에 '기본적 가치', '전략적 이익', '가장' 등 단어를 삭제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올해 일본의 외교 방향을 밝히는 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2014년 이후 8년째 되풀이했다.

외무성이 지난해 5월 공개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2018년 이후 3년째 계속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데 대해 "사실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2년째 이어졌다.

방위성이 지난해 7월 내놓은 '방위백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2005년 이후 16년째 되풀이했다.

미얀마 시민 '냄비시위' 美도 "군부 제재"

수지고문 '불복종' 독려에 응답
"악귀는 가라" 차 경적 울리기도
흘라잉 사령관 "불가피한 선택"
美 국무부 '쿠데타' 공식 규정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난 지 이틀째인 미얀마에서 시민들의 대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측근이 공개적으로 '시민 불복종'을 독려했고, 이에 응답한 시민들은 악귀를 내쫓는다는 의미를 담아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냄비를 두드리는 방식(사진)으로 시위에 나섰다. 미국이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공식 규정하며 "가장 강력한 제재"를 언급하고 나선 가운데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2일 AP통신에 따르면 오후 8시에 맞춰 '소음을 내달라'는 일부 민주화 단체의 요구에 맞춰 시민들은 이날 최대 상업 도시 양곤 등에서 시위를 벌였다. 한 시위 참가자는 "미얀마 문화에서 북을 울리는 것은 악귀를 내쫓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쿠데타와 동시에 끊겼던 전화선과 인터넷 등은 대부분 복구됐지만, 민주화 세력들은 추가 사태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오프라인 메신저 앱 '브리지파이'(Bridgefy)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미 이 앱은 미얀마에서 11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망사형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블루투스에 기반을 둔 이 앱은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홍콩·태국의 반정부 시위에서 사용되면서 유명해졌다.

수지 고문이 소속된 민주주의민족동맹(NLD)도 크게 저항하고 있다. NLD 당수 윈 하틴은 "쿠데타가 내린 저주는 미얀마에서 기인하며, 우리가 여전히 가난한 이유"라며 "지난해 총선에서 우리를 지지한 모든 유권자는 수지 고문의 지시를 따라 시민 불복종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군부에 의해 구금된 수백 명의 정치인이 이날 풀려난 가운데 수지 고문은 여전히 가택연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도 이날 미얀마 사태를 '쿠데타'로 공식 규정하고 제재 복원을 본격화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은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에 대해 유엔 제재를 포함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력을 쥐게 된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군사정부 수립 이후 첫 회의를 열고 "거듭된 총선 부정 조사 요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묵살했다. 국가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된 일"이라고 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2021 HANSAE PINULA(한세실업 과테말라 법인)
경력사원 공개채용

■ 모집 내용

구 분	지원직무	지 원 자 격	채용인원	근 무 지
신입/경력	경영일반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자 2. 영어 / 스페인어 가능자 3. 군필 / 미필 모두 지원 가능	0 명	한세 GUATEMALA 법인
경 력	영업관리	1. 영업 관리 경력 3년 이상 2.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자 3. 영어 / 스페인어 가능자 4. 군필 / 미필 모두 지원 가능	0 명	한세 GUATEMALA 법인
경 력	원단생산	1. 원단 생산 관리 경력 3년 이상 2. 스페인어 가능자 / 영어 가능자 우대 3. 군필 / 미필 모두 지원 가능	0 명	한세 GUATEMALA 법인

■ 공통필수 자격요건

- 영어 공인어학 성적 소지자 (경영일반, 영업관리 지원자, 영어권 대학 졸업자 면제)
- 해외출장 및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본사(한국) 근무 가능자 (일정기간 후 본사 파견기회 제공)
- 색맹, 색약이 없는자

■ 접수 기간

- 2021년 2월 3일(수) 09:00 ~ 2021년 2월 21일(일) 17:00까지 (과테말라시간 기준)
- HANSAE PINULA 채용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제출 yhshim@hansae.com

■ 전형 및 일정안내



*1차면접시 별도 언어 TEST 진행

■ 인턴 기간

인턴 6개월 근무 후 평가 우수자에 한하여 정규직 채용 (신입 채용에 한함)

■ 급여 수준

당사 내규에 따름

■ 복리 후생

- 우리사주제도(ESOP), 우수사원 뉴욕연수, 장기 근속자 해외관광
- 단기 MBA 교육 지원(팀장급)
- 전자 도서관, 경조사 지원

■ 문 의 처

- HANSAE PINULA 채용담당자 (502)3007-3472 yhshim@hansae.com

■ 기 타

-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됩니다.
- 1차 면접시 제출서류 : 최종 졸업(예정)증명서(재학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어학성적증명서, 기타 자격증 사본
- 최종 면접시 제출서류 : 1차 면접시 제출 서류에 대한 원본

스 포 츠

케인 부상 공백 해법은 '손흥민' 다시 SON톱 활약 기대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빠진 토트넘 홋스퍼가 유일하게 기댈 선수는 손흥민이다.

케인은 지난달 28일 리버풀전서 발목 부상으로 당분간 결장하게 됐다. 최소 2~3주의 회복을 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은 이미 케인 없이 치른 1일 브라이턴 앤 호브 앨비언전을 0-1로 패하며 공백을 느꼈다. 토트넘은 오는 14일 맨체스터 시티전에는 케인의 복귀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으나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케인은 토트넘의 확실한 공격수다. 이번 시즌 19골 14도움으로 토트넘 공격을 주도했다. 특히 손흥민과는 13골을 합작하는 엄청난 호흡을 과시했다. 손흥민은 브라이턴전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케인의 공백을 느꼈다.

그렇지만 현지에서는 손흥민이 변함없는 활약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비사커'는 2일 "분명 손흥민은 토트넘과 최고의 시즌을 보낼 것이다"라며 케인의 공백과 관계없이 맹활약할 것으로 보았다. 손흥민은 시즌 16골 12도움으로 케인 못지않은 활약을 하는 중이다.

'비사커'는 지난해를 예로 들며 손흥민의 활약을 전망했다. 케인은 지난해 1월 햄스트링 부상으로 4개월간 결장했다. 토트넘은 케인이 쓰러지자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했다. 손흥민은 케인 공백 초기에는 부진했지만 이내 제 기량을 회복했다. 그리고 2월에 팔 부상을 하기 전까지 6골을 터뜨리며 'SON톱'으로 실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비사커'는 "가레스 베일은 많은 토트넘 팬들이 바라던 것이 아니었다. 간신히 몇 골을 넣었지만 90분 풀타임을 1번 소화한 것이 증명한다"며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는 베일이 케인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케인의 부재는 카를루스 비니시우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비니시우스가 최전방에서 기회를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적료 1400억 →회수금 0원'

아스널이 임금 500억 아꼈지만 씁쓸한 이유

아스널이 주급을 대폭 절약했음에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스널은 올겨울 대대적인 방출 작업에 나섰다. 주요 대상은 고주급자였다. 명단에서 제외된 메수트 외질, 소크라티스 파파스타폴로스를 비롯해 전력 외인 시에드 콜라시냑, 슈코드란 무스타피를 내보내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외질이었다. 외질은 2013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아스널 유니폼을 입었고 7년이 넘게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서 뛰었다. 아스널 소속으로 공식전 254경기를 소화하며 44골 71도움을 기록했다. 특유의 번뜩이는 패스 능력으로 아스널의 주축으로 활약했으나 미켈 아르테타 감독 부임 후에는 스쿼드 제외라는 굴욕을 맛봤다.

외질은 미국 메이저리그(MLS)행도 거론됐으나 터키 페네르바체의 둥지를 틀었다. 올해 6월까지 아스널과 계약이 되어 있었으나 계약 해지를 통해 자유계약신분(FA)으로 페네르바체에 입성했다.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로 떠난 소크라티스도 마찬가지였다. 샬케로 이적한 콜라시냑과 무스타피는 임대지만 사실상 방출과 다름이 없다.

영국 '더 선'은 "아스널은 4명의 선

HANA TOUR

☆ 세계 전 지역 항공권 - 멕시코 직항 / 한국 출발 / 과테 출발 / 전세계 출발
☆ 세계 전 지역 패키지 여행 / 단체 패키지 여행
(쿠바 / 코스타리카 / 브라질 / 페루 / 유럽 / 칸쿤
☆ 쿠루즈 여행

이희경(Edita Lee)
502) 3042 6968 / 카카오톡 ID : editaguate
email : hanatourguate@gmail.com
5 Av. 16-35 # 703 Plaza Pacifico Sur, Zona 14

가장 저렴하고 질 좋은 여행~~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예약제
영업합니다.

- 예 약 전 화 -
오팔영사-영영삼영
23ave 1-43 Zona 7

2시간전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영업시간 월~일, 오후 4시~9시)

도 레 미



축하합니다!

시각예술로 가는 길. 앤지정 화실
한국 최대 입시 미술학원 그린실 과테말라 지점

지난해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주최한 미주 온라인 문예공모전 중미카리브 협의회 예선에서 3위를 차지한 김레이 학생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제목: 피어나는 미래
작가: 김레이
(Equity American School)

Through this artwork, I portrayed the likelihood of a bright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for when and if North and South Korea are to be united peacefully.
There are two flowers in the artwork, which are the naional flowers of the two countries, signify the individualism from each Korea; each of them has its own uniqueness.
The branches represent "new life" and "growth". Although the tree branches are separated, they all derive from a single tree. which shows tha the two Koreas share the same root.

소수 그룹 대면수업 / 온라인 수업 진행중입니다.

카톡아이디: angienius@gmail.com
전화: 5834-1414 웹싸이트: angiechung.com
이메일: whenartistheway@gmail.com

카톡 QR코드:

수를 방출하면서 총 3,724만 유로(3,280만 파운드, 약 500억원) 정도의 임금을 절약했다. 이는 양질의 선수를 영입하기 아주 적합한 금액이다"고 전했다. 아스널은 절약한 자금을 활용해 레알에서 마르틴 외데가르드를 임대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했다.

이처럼 주급을 대폭 아낀 아스널이지만 씁쓸함을 피할 수 없었다. 또다시 이적료를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스널은 외질, 소크라티스, 콜라시낙, 무스타피를 영입하는데 총 1억 400만 유로(약 1,400억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회수금은 0원이었다. 과거 알렉시스 산체스, 산티 카솔라, 대니 웰백 등을 거액을 주고 영입하고도 판매액을 얻지 못한 상황이 반복됐다.

선수단 정리에 성공한 아스널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3일(한국시간) 열린 2020-21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22라운드에서 울버햄튼에 1-2 역전패를 당했다. 니콜라 페페가 선제골을 넣었으나 다비드 루이스가 퇴장당해 수적 열세에 몰렸다.

이후 후벵 네베스, 주앙 무티뉴에게 연속 실점을 헌납했다. 베르트 레노까지 레드 카드를 받아 수렁에 빠졌다. 결국 아스널은 패배를 맛봤고 7경기 무패 행진은 종료됐다.

류현진, 새 시즌 기대 품고 미국으로 출국 "야구에 전념해야죠"

"양현종과 통화 한 번 했다"..빅리그 도전하는 1년 후배 격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한국 팬들의 기대'를 안고 미국으로 떠났다.

류현진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행 비행기에 올랐다.

출국장으로 들어서기 전 연합뉴스와 만난 류현진은 "곧바로 (팀 훈련장이 있는) 플로리다주 더니든으로 간다"며 "이제는 야구에 전념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류현진은 인천공항을 찾은 아내 배지현 전 아나운서와 아버지 류재천 씨, 어머니 박승순 씨와 포옹하며 '짧은 이별'을 고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일정이 모두 끝나는 11월에야 가족과 만날 수 있다.

류재천 씨는 류현진에게 "몸 잘 챙겨"라고 말했다. 박승순 씨는 아들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다.

아내 배지현 씨도 애틋한 표정으로 남편을 배웅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류현진은 인파에 둘러싸여 출국 인사를 했고, 취재진과 간단한 출국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출국 인터뷰는 하지 않았다.

류현진은 "훈련 잘했다. 공도 한두 번 던졌다"며 "잘 다녀오겠다"고 짧은 인사만 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준비하는 1년 후배 양현종(33)을 향해서도 "그냥 통화 한 번 했다"고 했다. 한 마디였지만, 후배를 응원하는 감정은 담겼다.

류현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현종, 김하성 등 KBO리그에서 뭔가 보여준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류현진과 함께 생활할 장세홍 트레이닝 코치는 미국 비자를 얻는데 시간이 필요해, 일주일 정도 뒤에 미국으로 건너간다.

토론토 투·포수조는 이달 18일부터 더니든 TD볼파크에 모여 훈련한다. 류현진은 조금 일찍 플로리다에 도착해 개인 훈련을 한 뒤, 팀 훈련에 합류할 계획이다.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개막일은 4월 2일이다.

48인치 드라이버 시험 제동 걸리나

비거리 혁명을 이끌고 있는 브라이슨 디샘보가 48인치 드라이버로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드라이브 비거리를 날리는 장면은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비거리 증대를 골프의 매력과 순수성, 미래를 위협하는 “해로운”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 R&A가 48인치 클럽을 제한하는 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AFP|연합뉴스

비거리 혁명을 이끌고 있는 브라이슨 디샘보가 48인치 드라이버로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드라이브 비거리를 날리는 장면은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비거리 증대를 골프의 매력과 순수성, 미래를 위협하는 “해로운”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 R&A가 48인치 클럽을 제한하는 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AFP|연합뉴스

브라이슨 디샘보는 올 시즌 미국남자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드라이브 비거리 329.2야드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시즌 비거리 322.1야드보다 7.1야드가 더 늘었다. 2003년 PGA 투어 평균 비거리 285.9야드와 비교하면 43.3야드나 더 멀리 보낸다.

디샘보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48인치 드라이버로 바꾸는 것까지 테스트하고 있다. 드라이버 길이가 늘어나면 정확도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거리는 더 나간다. 테스트에 따르면 샤프트 길이가 1인치 늘어나면 비거리가 약 10야드 증가한다.

그러나 디샘보가 48인치 드라이버로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드라이브 비거리를 날리는 장면은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비거리 증대를 골프의 매력과 순수성, 미래를 위협하는 “해로운”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 R&A가 클럽 길이를 제한하는 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USGA와 R&A는 3일 기술 진보에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직 원 모 집

KL PRIMETEX 과테말라 에서 함께 하실 인재 여러분을 모집 합니다.

1. 모집 부문 및 인원

부 서	자격 조건	인 원
영업팀 (생산 및 관리)	경력 / 신입	각 1 명

2. 자격 사항

1) 모집 부서에 해당하는 경력
2) 영어/스페인어 가능자
3) 과테말라 거주자 또는 거주 가능자
4) 해외 출장에 문제가 없는자



3. 제출 서류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경력자의 경우 이력서에 경력사항 상세히 기재 요함)

4. 서류 접수

E-MAIL 접수 (yscho@klguate.com)

K O H

clinica dental

¿ 이빨이 아프십니까 ?　¡ 더 이상 고통은 NO !

En Koh Clínica Dental 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치주질환 치료, 신경치료, 치아 발치



교정, 보철, 미백
성인 및 어린이 스케일링
수술, 임플란트

Dr. Fernando Azmitia
Calzado Roosevelt 35-98 zona 7, Hospital de Día Itzamná, clínica #5
2485-6718 / 2485-6719 / 3148-1105
Búscanos en redes sociales
Facebook: @KohClinicaDental Instagram: @kohclinica

따른 비거리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장비 규칙 변경 제안을 내놓았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로컬룰로 최대 허용 클럽 길이를 48인치에서 46인치로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두 단체는 3월4일까지 한 달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 제안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 제안이 채택된다면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은 마스터스에서 퍼터를 제외한 모든 클럽의 길이를 46인치로 제한하는 로컬룰을 시행할 수 있다. 대회 주최 측의 판단이나 의지에 따라 46인치로 제한할 수도, 48인치 드라이버를 허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USGA와 R&A는 갈수록 늘어나는 비거리를 골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USGA가 발표한 2020년 비거리 백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남녀 투어의 평균 비거리가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러피언 투어가 2003년 286.3야드에서 2020년 301.9야드로 15.6야드 증가했고, PGA 투어는 285.9야드에서 296.4야드로 10.5야드 늘었다. 2020년 현재 평균 비거리가 가장 긴 투어는 콘 페리 투어로 평균 303야드를 기록했다. 2003년 292.3야드에서 10.7야드 증가한 수치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비거리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2003년 249.6야드에서 2020년 253.1야드로 3.5야드(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LPGA 투어는 2019년 258.6야드에서 5.5야드 줄어들어 유일하게 비거리 감소를 기록했다.

2019년 영국 아마추어 남성 골퍼의 평균 드라이브 비거리는 215.6야드였다. 핸디캡 6 미만 골퍼는 239.2야드였고, 핸디캡 6~12는 219.8야드, 13~20은 200야드, 21이상은 176.6야드였다. 2013~2019년 사이 측정된 여자 아마추어 골퍼들의 평균 드라이버 비거리는 147.9야드였다.

핸디캡 6 미만은 196.7야드를 날렸고, 6~12는 177.5야드, 13~20은 155야드, 21~28은 141.5야드였다.

2020년 PGA 투어의 평균 클럽 헤드 속도는 시속 114.0마일이었으며 평균 발사 각도는 10.5도, 평균 스핀량은 2542rpm이었다. 비거리 손실의 주범인 스핀량은 2007년 2814rpm에서 13년 동안 272rpm 감소했다.

USGA와 R&A는 골프공 테스트 방법 개선과 클럽 페이스의 반동 효과 상한 변경 등의 규정 개정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8월 초까지 6개월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메시에게 7500억원? 그 돈으로 만든 베스트 11

리오넬 메시(34)가 바르셀로나(스페인)와 3년 전 맺은 계약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스페인의 '엘 문도'는 바르셀로나가 2017년 메시와 재계약하면서 계약 만료일인 올해 6월까지 4년 동안 총 5억 5523만7619유로(7515억원)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세계 프로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의 금액이다. 바르셀로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정적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메시가 받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공개되자 현지의 많은 언론들이 "메시와의 거대 계약이 바르셀로나를 망쳤다"고 지적했다.

스페인 언론 '마르카'도 동참했다. 이 매체는 메시 계약서가 공개된 후 메시에게 지급한 임금으로 영입할 수 있는 선수로 구성한 '베스트 11'을 공개했다. 2017~18시즌부터 2020~21시즌까지 이적한 선수들이 후보였다. 포메이션은 3-4-3이다.

'마르카'가 짠 베스트 11의 골키퍼는 에데르손이다. 그는 2017년 벤피카(포르투갈)에서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맨시티)로 이적했고, 이적료는 4000만 유로(542억원)를 기록했다.

수비수 중 하나는 2019년 유벤투스(이탈리아)에서 맨시티로 이적한 주앙 칸셀루다. 그의 이적료는 4000만 유로(542억원)로 책정됐다. 2018년 AC밀란(이탈리아)에서 유벤투스 유니폼을 갈아입은 레오나르도 보누치는 3500만 유로(474억원)의 몸값을 기록했다.

수비수 3명 중 나머지 한 명은 아치라프 하키미다. 2020년 인터 밀란(이탈리아)은 하키미 영입을 위해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 4000만 유로(542억원)의 이적료를 지불했다.

네 명으로 구성된 미드필더 라인도 화려하다. 로드리(맨시티)가 첫째 주자다. 그는 2019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에서 맨시티로 이적했고, 이적료 6300만 유로(853억원)가 발생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맨유) 미드필더 두 명이 이름을 올렸다. 2020년 아약스(네덜란드)에서 맨유로 이적한 도니 판 더 빅과 스포르팅(포르투갈)에서 맨유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다. 둘은 각각 3900만 유로(528억원), 5500만 유로(745억원)의 이적료를 기록했다.

마지막 미드필더는 첼시(잉글랜드)가 야심 차게 영입한 카이 하베르츠다. 2020년 첼시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레버쿠젠(독일)에 8000만 유로(1084억원)의 거금을 지불했다.

스리톱 역시 막강하다. 2019년 벤피카(포르투갈)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무려 1억2000만 유로(1625억원)의 이적료를 발생시킨 주앙 펠릭스가 첫 번째 주인공이다. 두 번째는 2020년 발렌시아(스페인)에서 맨시티로 둥지를 옮긴 페란 토레스다. 그의 이적료는 2300만 유로(312억원)였다.

마지막 주자는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핫한 공격수 중 하나 엘링 홀란드다. 2020년 홀란드의 진가가 제대로 드러나기 전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는 도르트문트(독일)에 2000만 유로(271억원)를 받고 홀란드를 내줬다.

'마르카'는 "바르셀로나는 메시에 이 엄청난 돈을 퍼주느라 이런 라인업을 놓쳤다"고 비꼬았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C-SITE

C-SITE 과테말라 법인 채용 공고

1. 모집 부문 및 지원 자격

부 서	구 분	구인 직급	인원	지원 자격
영업부	원단 관리	신입/경력 (주임 - 대리)	각 0명	▷영어, 스페인어로 업무 진행 가능자 ▷해외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디테일 (생산관리)			
관리부	수출입	경력직(대리-부장)		

2. 전형 방법

- 1차 : 서류 전형
- 2차 : 면접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3. 제출 서류

- 영문 또는 한글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4. 문의처

- 담당자 : 관리부 주임 한희성 (Alejandro Han)
- e-Mail : alejandro@c-site.co.kr

배달 합니다 배달 합니다 배달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7시까지 주문 받습니다

맛배달

이젠, 간편하게 시켜 먹자



메 뉴

김치찌개 소불고기
된장찌개 청국장
순두부찌개 육계장
부대찌개 돈까스
제육덮밥
낙지덮밥
오징어덮밥



*일요일 쉽니다

이사삼구-사영영사 / 오육구팔-영이일삼 1c. 35-80 Col.Toledo Zona 7

방 송 / 연 예

'싱어게인' 톱10 음원 나온다

JTBC '싱어게인'이 정홍일을 비롯한 TOP10 진출자들의 경연곡들을 음원으로 발매한다.

지난 1일 방송된 '싱어게인-무명가수전'(이하 '싱어게인') 11회의 무대들이 오늘 2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음원으로 발매된다.

이날 발매되는 '싱어게인 EP11'에는 타이틀곡 정홍일의 'Maria'를 시작으로 최예근의 'Irony', 유미의 '개여울', 태호의 '사랑 사랑 사랑', 요아리의 '안녕'까지 총 5곡이 수록된다.

정통 헤비메탈의 진수를 보여준 29호 가수 정홍일은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OST로 유명한 'Maria'를 선곡했다. 특히 정홍일은 원곡의 희망적인 가사에 자신만의 감성과 색깔을 더해 '정통 록'의 강렬한 존재감을 뽐냈다. 정홍일의 시원한 고음과 신선한 편곡으로 재탄생한 'Maria'는 음원으로도 한번 더 짜릿한 전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23호 가수 최예근은 심사위원 선미의 데뷔곡인 원더걸스의 'Irony'로 매력적인 무대를 펼쳤다. 차별화된 트랩 사운드가 돋보이는 편곡으로 원곡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만들어낸 최예근은 소울 넘치는 가창력에 자작 랩까지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33호 가수 유미는 정미조의 '개여울'로 아련한 감성을 가득 담아냈다. 유미는 피아노 반주 하나에 목소리 만으로 무대를 가득 채우며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레전드 무대를 만들어냈다.

37호 가수 태호는 뉴 잭 스윙 스타일로 편곡한 김현식의 '사랑 사랑 사랑'으로 세련되고 임팩트 넘치는 무대를 꾸몄다. 음악뿐만 아니라 헤어와 의상까지 신경 써 꽉 찬 무대를 만들어낸 태호는 여유로운 무대 매너로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47호 가수 요아리는 그동안 자신을 아프게 한 모든 것들과 작별하는 의미로 '안녕'을 불렀다. 원곡과는 달리 몽환적인 분위기로 편곡된 이 곡은 요아리의 독보적인 음색에 절제된 감정 표현이 더해져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오디션 프로그램 최초로 번호제를 도입한 '싱어게인'은 참가자 모두를 1호부터 71호 가수로 호명하며 그 정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바 있다. 특히, TOP10 진출자들은 지난주 명명식과 함께 본인의 이름을 되찾아 더욱 자신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다

방송의 인기에 힘입어 '싱어게인' 가수들의 레전드 무대를 담아낸 음원 역시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26일 발매된 '싱어게인 EP10'에 수록된 음원의 무대 영상들도 역대급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이무진의 '꿈' 영상은 조회수 133만 뷰를 돌파했으며 이소정의 '살다보면' 영상은 조회수 53만 뷰, 김준휘의 '외로운 사람들'은 30만 뷰를 기록하며 방송의 여운을 이어가고 있다.

JTBC '싱어게인'은 세상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재야의 실력자, 한땐 잘 나갔지만 지금은 잊힌 비운의 가수 등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신개념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파이널 무대만 남겨둔 현재 TOP3는 누가될지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싱어게인 EP11' 앨범은 오늘 2일 낮 12시에 발매된다.

김동성 전처 "재혼 축하하지만 방송엔 안나왔으면, 양육비 지급도 거짓말"

전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이자 해설위원인 김동성 전처가 김동성의 '우리 이혼했어요' 방송 관련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국 꽃집 - Con Flor

플라워샵 위치 : Z.10-HOLIDAY INN 호텔 근처 TEL.4069-5410, 3042-6968

Conflor Guatemala / Web:www.conflorguatefler.com

기억하고 싶은 모든 순간을 ConFlor와 함께 하세요!!
감사와 축하의 자리에, 향기로운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 드려요.
한국 포장 재료와, 자연미가 돋보이는 플라워 스타일 ~ ConFlor !!

개업 및 결혼식을 빛내 줄 새로운 개념의 세련된 축하 화환 및 모든 화환!

꽃다발, 꽃바구니 당일 배송 서비스 합니다.
1ra. Ave. 12-77 Zona 10 Torre 2 de Santa Clara #7

Tel. 2479-1394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자장면	짬뽕	볶음밥	누릉지탕
간짜장	해물짬뽕	짜장밥	탕수육
사천짜장	홍합짬뽕	짬뽕밥	칠리탕수육
삼선짜장	해물불짬뽕	잡채밥	반반탕수육
고추짜장	콩나물짬뽕	야끼밥	육해공잡탕
쟁반짜장	매운굴짬뽕	잡탕밥	잡탕
유니짜장	옛날백짬뽕	고기덮밥	팔보채
삼선간짜장	육해공짬뽕	고추덮밥	양장피
해물불짜장	해물어묵짬뽕	삼선볶음밥	유산슬
짬짜면	삼선야끼우동	새우볶음밥	깐풍기
짜우면	삼선우동	중화비빔밥	깐풍육
뽂짜면	기스면	마파두부밥	깐풍새우
뽂짬면	유산슬밥	군만두	고추잡채

한식메뉴

감자탕	청국장
영양탕	비빔밥
염소탕	회덮밥
영양수육	김치전골
염소수육	부대찌개
한방닭	생선백반
한방백숙	비지찌개
한방오리탕	왕돈까스
장모보쌈	동태찌개
삼겹살	오징어덮밥
해물탕	오삼불고기
매운탕	야채불고기

신속배달 솔가

2339-5680, 4444-7914

"무한정 삼겹살" 제공

"염 소 탕" 개시



김동성 전처 A씨는 1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네이버 카페에 "안녕하세요. 저는 ㄱㄷㅅ씨의 전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친구들로부터 '우리 이혼했어요'에 나오냐는 카톡을 받고선 너무 놀라서 본방송을 볼 수조차 없어서 지인들에게 짤막하게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저도 섭외를 받았지만, 아이들이 '우리들의 엄마로만 살아달라'고 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후 김동성이 방송에 안 나올 줄 알았다는 A씨는 "지난해 12월 ㄱㄷㅅ(김동성) 씨의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출연료 일부를 양육비로 미리 입금하겠으니,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 내려 줄 것과 방송 출연 후 언론플레이하지 말라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변호사는 (김동성이) 이미지를 쇄신해야 돈을 벌어 양육비를 줄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 밝혔다.

양육비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냐고 반문한 A씨는 방송 내용은 더 깜짝 놀라웠다고 했다. 방송에서 김동성이 300만 원을 벌어 200만 원을 꼬박 줬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라며, 김동성은 아이들과 면접교접권으로 고작 세 번 만난 것이 전부라며 꼬집었다. 또 아이들이 재혼 이야기까지 방송으로 접한 것에도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김동성이) 이혼하자마자 청부살인녀가 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두 달후에 동거를 시작했다. 청부살인녀가 사준 고가의 외제차를 팔아 현금을 가지고 있어, 골프채, 라운딩, 해외여행, 명품 쇼핑 등도 하더라. 그러나 정해진 양육비는 300만 원이었음에도 날짜도 뒤죽박죽으로 주고, 기분 좋으면 200만 원을 줬다. 아니면 돈이 없다며 기다리라더라"고 주장했다.

아이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가장 가슴 아프다는 A씨는 "이제 이혼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아이들과 저 어느 정도 안정기가 찾아왔는데, 아이 아빠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재혼은 너무 축하해주고 싶다"면서도 "방송은 두 번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다른 게시물에서는 김동성과 인민정이 운영하는 과일 가게 사이트를 첨부해 "저한테는 과일 팔아서 몇 푼 안 남는다고 하면서, 2019년 추석 때는 과일로 양육비를 대신하자고도 했었다"고 했다.

김동성은 2018년 전처와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전처는 김동성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주장, 구설에 올랐다. 또 김동성은 최순실 조카인 장시호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에도 휩싸여 의문을 남긴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의 내연남으로 지목된 일도 있었다.

특히 김동성은 이혼 당시, 전처가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전처가 가져가고, 자신은 2019년 1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아이 당 매달 1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처는 김동성이 지난해 1월

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김동성에게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동성은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미지급한 '나쁜 부모'의 얼굴과 신상 등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

그러자 김동성은 전처에게 양육비 일부를 지급, 향후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해, 그의 신상은 '배드파더스'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김동성은 또 다시 약속을 깨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그의 신상은 6개월 만에 '배드파더스'에 다시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김동성은 1일 방송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배드파더스' 등재에 해명하고 연인 인민정과 재혼 의사를 밝혀, 시청자들의 공분을 키웠다.

이날 방송에서 김동성은 '배드파더스'에 등재된 것에 대해 "원래 성인들을 가르쳤는데 코로나19 이후 링크장이 문을 닫으면서 일을 못했다. 월급 3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은 양육비로 보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양육비 때문에 방송 출연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김동성은 "양육비 충당을 위해 방송하는 것도 있다. 더 이상 밀리지 않게끔 내 자리를 잡는 게 최우선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연인 인민정과 재혼 의사를 밝히며 "TV에 나오면 분명히 절 안 좋아할 것이고 여자친구까지 싸잡아서 욕할까 걱정이다"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송지효, TVING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배우 송지효가 매력적인 마녀 캐릭터로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그룹 아이엔지는 "송지효가 TVING(티빙) 오리지널 〈마녀식당으로 오세요〉(가제, 극본 이영숙, 연출 소재현, 제작 ㈜아폴론스튜디오)에 출연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송지효가 출연소식을 알린 〈마녀식당으로 오세요〉는 제3회 교보문고 스토리공모전 대상 수상작인 구상희 작가의 동명 장편소설을 드라마화 한 작품. 사람의 소원을 이뤄주는 음식을 팔지만, 아무에게나는 아니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것을 이뤄주는 식당을 배경으로, 마녀와 알바생 등이 어우러져 손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낼 판타지 휴먼드라마다.

송지효는 극중에서 사람의 소원을 이뤄주는 음식을 파는 식당의 주인이자 마녀 '조희라' 역을 맡았다. 이름 외엔 나이 등 어떠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로, 묘한 표정과 가만 있어도 한기가 느껴지는 차가운 성격을 지녔지만, 마성의 매력과 아름다우면서도 강렬한 비주얼의 소유자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

그 동안 송지효는 영화, 드라마, 방송 등 장르불문 폭넓게 활약하며 남녀노소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굳혔다. 특히 지난해 영화 〈침입자〉에서의 서늘한 얼굴의 반전 캐릭터는 물론, JTBC 〈우리, 사랑했을까〉에서 당당하고 주체적인 슈퍼워킹맘 캐릭터까지 다채롭게 소화하며 배우로서 열일행보를 펼쳤다.

송지효가 이번 작품 속에서 그려낼 색다른 마녀 '조희라' 캐릭터에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진다. 특히, 출연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인지도가 탄탄한 만큼 OTT플랫폼의 오리지널 작품 출연소식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송지효가 출연하는 〈마녀식당으로 오세요〉는 8부작이며 2021년 TVING에서 방송예정이다.

박은영♥김형우, 눈물의 둔위회전술 "노산인데 욕심 같아"

박은영이 둔위회전술에 성공했다.

아람 정육점 CARNICERIA ARAM

신선한 고기로 맛있는 식탁을 꾸미세요!



KN95 마스크 Q10 판매

벌집 삼겹살 개시!!
각종김치, 각종 반찬, 족발

로데오 통합 배달
2호점 : 2221-5364

영업 시간 월~토 / 8:00~7:00
주 일 / 8:00~7:00

전화 : 사오일사- 영팔영이 / 32 AVE. 1-40 Z. 7 UTATLAN 1
위치 : 로데오 2호점 옆 ※ 머릿고기 주문 및 고기 재워 드립니다.

2월 2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서는 박은영-김형우 부부의 하루가 그려졌다.

이날 박은영과 김형우는 둔위회전술(역아회전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본격적인 둔위회전술이 시작되기 전 검사에서 양수가 적고 태아가 박은영 뱃속에서 다리를 편 채 자리를 잡아 우려를 자아냈다.

심지어 둔위회전술을 시도했으나 긴장으로 박은영 배가 단단히 뭉쳐 중단됐다. 결국 의사의 권유로 박은영은 자궁수축억제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제왕절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어 분만실로 이동했다.

분만실에 누운 박은영은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박은영 엄마는 "나는 넷을 낳아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울컥했다. 서둘러 전화를 끊은 박은영은 눈시울을 붉혔다.

재차 둔위회전술이 시도됐으나 단단히 자리 잡은 엉또(태명)로 인해 또 다시 시간이 지체됐다. 결국 의사는 박은영의 위로 올라가 천천히 둔위회전술을 시도했고 마침내 엉또는 무사히 회전했다.

둔위회전술을 마친 박은영은 분만실 앞에 앉아있는 김형우와 영상통화를 했다. 박은영은 "이것도 이렇게 힘든데 분만은 어떻게 하냐"며 "쉽지 않다. 엄마 되는 거. 노산인데 욕심을 부렸나 싶다"고 눈물을 쏟았다.

'루카 더 비기닝' 김래원, 이다희 또 구했다 김성오 피해 도주

'루카 : 더 비기닝' 김래원이 이다희를 또 다시 구했다.

2일 오후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루카 : 더 비기닝'에서 지오(김래원 분)는 하늘에구름(이다희 분)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 그를 살렸다. 이들은 이손(김성오 분) 무리를 피해 도망쳤다.

앞서 지오는 이손에게 쫓기다 중태에 빠졌다. 이 가운데 황정아(진경 분)는 김철수(박혁권 분)를 불러 지오에 대해 물었다. "그 아이 다시 나타났냐. 성능이 더 좋아진 것 같더라. 마지막 기회다. 이미 성공했어야 할 프로젝트다. 그 아이 도망가는 바람에 낭비한 시간이 얼마인지 아냐. 제발 나만큼만 일해라. 같이 영광의 시간 만들자"라고 말했다. 김철수는 꼭 수거해 오겠다고 대답했다.

김철수의 지시로 이손과 그의 무리들은 병원에 잠입, 지오를 빼내려 했다. 이때 구름이 지오의 병실을 찾았다. 이손은 별관에 있는 집중치료실로 이동한다며 형사들도 속이려 했다.

하지만 구름은 동료 형사들을 먼저 보내고 "차트 없냐. 환자가 이동하면 차트도 따라 이동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의문을 품고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다. 구름이 "로비 가는 거 아니냐. 왜 지하 3층을 누르냐"라는 말을 하자마자 유나(정다은 분)가 가발을 벗고 구름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때

MEGA IPTV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방송을 ...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가장 빠르고 선명하게 시청가능!
서비스 및 문의전화 : 사영이영-사영삼영

1. 한국에서 방송중인 실시간 50개 채널을 동시에 시청
2. 실시간 방송 외 영화, 드라마, 예능/오락,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유아/어린이 등 원하는 시간에 시청가능
3. 기타 타사 IPTV의 고정관념 버퍼링 및 끈김현상 완벽 보완
4. 타사의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시청하지 못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저희 가 방문 후 MEGA IPTV로 바꿔 드리고 동시에 남은 잔여일을 보장 가능
5. 다양한 시청료 패키지
   6개월 / 12개월 + 설치비 무료!! 및 환불보장!!
6. 차별화를 둔 신속한 A/S



업무시간: 8:00 ~ 5:00 (업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요일 및 방문시간 조정가능)
(전화연결 안될시 문자 및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오가 의식을 회복했고, 몸싸움 끝에 도주했다.

이 상황을 주시하던 류중권은 지오가 한계를 넘었다며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다. 몸이 견디지 못하니까. 강한 세포만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김철수에게 알려 긴장감을 드높였다.

이후 구름은 끈질기게 지오를 쫓았고 드디어 마주할 수 있었다. 지오는 "기다렸다. 네 눈이 궁금해서.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눈으로 보냐"라고 물었다. 구름은 "평생 널 찾아다녔다"라며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엄마랑 아빠 어떻게 된 거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오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손 무리가 등장했다. 지오는 궁지에 내몰렸고 철길을 따라 도망쳤다. 구름은 유나와 몸싸움을 벌이다 철길에 쓰러졌다. 지오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또 한번 능력을 발휘, 구름을 살렸다.

한편 '루카 : 더 비기닝'은 특별한 능력 때문에 쫓기게 된 지오(김래원)가 유일하게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강력반 형사 구름(이다희)과 함께 거대한 음모에 맞서는 액션극으로 매주 월, 화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미스트롯2' 진상규명위원회 "제작진 공정성 문제에 침묵"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다.

'내일은 미스트롯2'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지난 1일 "지난 12월 24일 '내정자' 및 '공정성' 논란에 대해 제작진 측의 명확한 해명 및 지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제작진 측은 '내부적으로 확인하겠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 이후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다 확실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진상규명회에서 공개한 진정서에는 '미스트롯2' 제작진이 참가자를 접수할 때 공지한 접수 날짜를 지키지 않고 진출자를 모집받아 경쟁을 늘렸다며 "심사 없이 탈락된 상황으로 많은 지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공정성 문제와 내정자 의혹에 대해 끝끝내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행태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 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첫 성명문을 발표한 이후 한 지원자로부터 제작진이 방송 콘셉트와 선곡을 직접 해 줬다는 제보를 받게 됐다면서 "최종합격 직전까지 갔던 지원자였으며 최종 오디션은 2차 영상오디션이었다. 당시 제작진이 5곡을 요청했는데 무대 콘셉트를 잡아 주고 한 곡을 특정해 선곡에 포함시키면서 참가자의 의견보다 제작진이 요구했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내용을 전했다"면서 "오디션과 노래 경연대회에서 본인의 실력에 걸맞은 선곡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 심사위원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제작진이 선곡에 일부 관여하는 부분은 해당 참가자들이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게 하는 것이 아닌, 내정된 참가자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고 지적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7일 방송에서 논란이 된 한 무대에서 악마의 편집으로 불편한 조롱과 강도 높은 비난까지 받은 한 참가자가 제작진이 직접 무대기획과 구성을 관여했었던 사실을 폭로했다며 "같은 날 방송에서 왕년부 팀이 냉정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올하트를 받는 등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없는 심사라는 비판이 이어져, '친목 심사'라는 말이 생겨났다"라며 "정말 무대가 간절한 실력자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제작진이 공정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짜여진 대본 대로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아동·청소년 출연진들에 대한 권익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한 어린이에 대한 악성 댓글이 발생하게 한 '초등부 팀 미션' 방송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며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아동 청소년이 방송 출연으로 인해 사이버 괴롭힘, 악성 댓글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내용도 있는데 '미스트롯2' 제작진 측이 논란이 될 만한 영상을 그대로 방송하고 이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했으며 영상에 대한 댓글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미스트롯2'가 대중의 공분을 산 '프로듀스 시리즈', '아이돌학교'의 투표 조작 사태를 답습해 일반인 참가자의 꿈을 짓밟았다고 주장한 진상규명위원회는 "매주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또 한 번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특집 '아육대: 명예의 전당' 민호→윤두준 출연

MBC '2021 설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 명예의 전당(이하 '아육대')'이 지난 활약상을 재조명하는 '레전드' 특집으로 찾아온다.

아육대는 2010년 추석 첫 방송을 시작으로 수많은 화제와 신기록을 만들며 명절 대표 예능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e스포츠(아이돌 e스포츠 선수권대회), 도그 어질리티(아이돌 멍멍 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신규 종목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 설특집 '아육대'는 경기장에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서 팬들과 만나는 대신 그동안 아육대에서 맹활약을 펼친 '체육돌'들과 아육대를 보고 자란 '아육대 키즈'들을 초청해 색다른 특집으로 꾸며진다. 샤이니 민호, 하이라이트 윤두준, 에이핑크 보미, 비투비 민혁, 오마이걸 승희, 아스트로 문빈, NCT DREAM 제노, 더보이즈 주연, 스트레이 키즈 현진, 있지(ITZY) 예지, 리아가 참석해 스튜디오를 빛낼 예정이다. 아육대의 터줏대감 전현무와 슈퍼주니어 이특이 사회자로 진행을 맡는다.

2월 2일 공개된 현장 사진 속 출연자들은 아이돌 선후배간의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현장에서는 출연자들의 깨지지 않는 놀라운 기록들과 지금까지 회자되는 '입덕'을 유발하는 '레전드 장면'들을 함께 감상하는 것은 물론 알려지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공개돼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제작진은 "'아육대'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안방 시청자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이번 특집을 기획하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집콕 명절'이지만 여느 때보다 건강한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육대'는 국내 최정상급 아이돌 스타들이 다재다능한 끼를 살려 스포츠 종목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매회 새로운 이슈와 볼거리를 만들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2021년 설특집 '아육대'는 오는 11일 목요일과 12일 금요일, 설연휴 이틀에 걸쳐 방송된다.

조수미X비
역대급 듀엣 성사
9일 테마곡 음원 발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가요계 최고의 남자 솔로 아티스트 비가 만난다.

엔씨소프트(엔씨(NC)), 클렙(Klap) 측은 2월 2일 "조수미와 비(본명 정지훈)가 함께 부른 '유니버스' 테마 곡이 9일 오후 6시 발매된다"고 밝혔다.

이번 테마 곡은 K-컬처의 선구자인 조수미, 비 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인 동시에 '유니버스' 세계관의 첫 출발점을 담아내고 있다. 세계가 극찬한 소프라노 조수미와 K-POP 최고 솔로 아티스트 비가 장르의 벽을 넘어서 함께 호흡을 맞췄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수미의 천상계 보이스 와 비의 강렬한 보컬이 만나 선보일 '유니버스'의 테마 곡은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을지, 두 아티스트의 특별한 만남이 주목된다.



교 민 장 터

교민장터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과테말라 거주 한국 교민들을 위한 무료 장터 입니다

몬테마리아 콘도 가정집
이층 사용 하실 여자분 구함
tel:5981-2692

빙수기 2대 팝니다.
1) 캐로스 CIM-255WT
2) 스노우반 NSD-151MW
tel : 5044-8798

중고 노트북
구합니다
tel:3132-2584

pueblito 매장 세 놉니다.
싼 월세, 작은 가게.
단일품목에 적합.
tel:4676-7100

3,4세용 유아용 도서
(생활동화, 자연관찰)구합니다.
판매 원하시는 분
연락주세요. 3013-3461

귀국으로 인해 살림 전체를
팝니다.
필요하신분 연락 바랍니다.
tel:5509-9972

집 판매 및 임대
소나10 아파트 방3개.화장실3개
정수기.세탁기포함
5652-8375/3400-2496

크라운호일 판매
24inch x 2000ft (16micron)
Silver $82 Black $120
tel:3696-8847

5개 라인 가능한 공장 양도
(수출 내수 가능)
시설 완비(보일러 포함)
GARITA안 위치/ 3009-0495

Parque 11. 최상층 아파트.
방3. 화2, 주차2. 헬쓰.수영장
가구포함(Q5,000) 비포함
(Q4000) tel:5466-8626

자동커피그라인더, 전기히터, 스
팀다리미, 화장대콘솔세트 등
(2년 미만사용) 5987-5252

적은 자본으로
식당하실분 소나1
(카톡 & 왓삽 연락요)
tel:3589-9299

중고 책 판매 합니다.
전래동화 68권
세계명작동화 78권
연락처 : 5206-7614

소매 옷가게 저렴하게
양도합니다
tel:5690-8868

Honda CRV 2014년식, 4x4,
Full Equipo, 28100km,
Agencia, $19,000
네고가능. tel: 4296-5967

AUDI Q5 2.0T, 2018년
S-LINE 풀옵션 22,440km
상태최상 $57,700
5433-4661(왓썹 & 카카오톡)

혼다 오디세이 2015년식
아헨시아
흰색 풀 옵션 가격 $17,000
tel:5312-1159

기아 세도나 7인승
2010년식 3800 cc
tel:5727 7922

2016년 혼다 CR-V EXL 4WD
에이전시 구입 28000km
가격 $21,500 네고 가능
tel:5017-0694

Nissan juke (Rojo)
2011년식, 아헨시아아님
(삼공이오-칠오구일)

**교민장터에 기재되는
내용의 사진을 첨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구 인 / 구 직

2021 HANSAE PINULA
(한세실업 과테말라 법인)

경력사원 공개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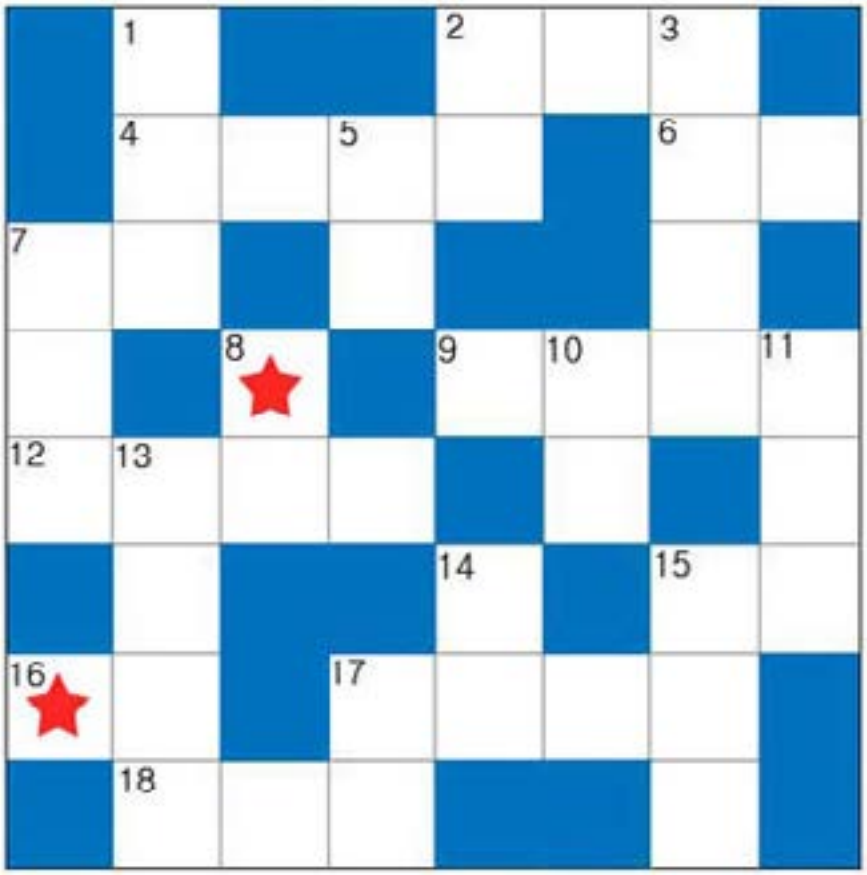
39페이지 참조

(주)태평양물류.
관리부 신입 (0)명 구함.
<1992 년생 이후 출생자>
이력서 제출.
bruno_yty68@hotmail.com

라인 여자
생산관리자 구합니다.
(조선족가능)
연락처 5203-7478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날 말 퀴 즈



지난 답



속담 : 병○○사 : 실패는 흔히 있는 일이니 낙심할 것 없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가로열쇠

2.도자기의 원료로 쓰는 흙
4.잡다한 것이 한데 뒤섞인 것
6.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입헌 군주국
7.원주율을 나타내는 부호 'π'
9.하는 일 없이 놀고먹음
12.호기롭고 자신 있게 말함
15.처마 끝에 다는 작은 종
16.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감
17.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
18.남이 시키는 일을 하여 주는 일

■ 세로열쇠

1.손으로 어떤 것을 잡을 수 있도록 덧붙여 놓은 부분
2.온몸은 순백색이며 다리는 검은 물새. 백조
3.미국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회오리바람
5.가축에게 주는 먹을거리
7.집안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는 난봉꾼
8.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
10.위엄과 신망
11.금강산도 ○○○
13.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음
14.타이르고 얼러서 마음을 달램
15.한국의 토종 사냥개. '풍○○'
17.종이나 옷감 따위의 구김살

드 래 곤 라 자

이 영 도

겨울 햇살이 뽀송뽀송하다.

"너무 더워… 이거 벗어도 되겠어."

메리안은 뒤집어쓰고 있던 외투를 벗느라 꿈지럭거렸다. 메리안의 시선이 목 뒤로 따끔따끔하게 느껴지는데. 난 헛기침을 하고서 말했다.

"그래. 허, 흠. 겨울 날씨가 이래서 참 다행이야. 여행하기 좋지?"

"무지무지하게 추울 거라고 겁주더니…"

모험가의 허풍은 무죄야. 제발 그런 눈으로 쏘아보지 말라고. 난 오만가지 허풍을 다 동원해서 메리안을 겁줬었다. 살을 도려내는 추위 속에서,며칠씩 굶어 고픈 배를 부여잡고 잠자리에 들지만, 뒤를 따라오는 몬스터들의 피에 젖은 이빨을 경계하면서 그나마 편하게 잠들지 못하는 공포스러운 밤… 그러나 네 곁엔 사상 최대의 모험가가 함께 하니 그를 믿고 따르라. (존경하는 후치님, 당신만 믿겠어요. 정도의 감정이 담긴 시선을 기대했다는 사실까지 말해야 할까?)

그런데 이라무스시를 떠나고도 이틀이 지나는 동안 날씨는 쾌청하기 짝이 없었고 세 때 꼬박꼬박 챙겨 먹어 배는 부르고 몬스터는 커녕 토끼새끼 하나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사상 최대의 모험가는 졸다가 말에서 떨어질 뻔해서 그 뒤에 타고 있는 레이디에게 엄청난 구박을 들은지 10분도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도대체 뭐 이래? 졸려 죽겠네. 이때 산적들이라도 우르르 나타나서 '가진 것 모조리 다 내놓고 목숨 하나만 가지고 지나가세요.'라고 친절하게 권해주면 얼마나 놓을까.

"가진 것 다 내놔!"

"만세!"

내 외침 소리는 산적들과, 메리안과,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당황하게 만들었다. 길 양편에서 우르르 나타난 남자들은 얼굴에 '당황'이라고 써 붙인 모습으로 날 올려다보았다. 뭔가 변명을 해야 한다는 참을 수 없는 강박관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7명밖에 안돼!"

내 두 번째 외침에는 별로 호소력이 없었고 산적들과 메리안은 보다 깊은 의문 속으로 침잠하는 모양이었다. 아무래도 내 본질을 오도하는 말을 해버린 것 같군. 난 썬더라이더에서 내려섰다. 안되겠어. 내 인격을 급부상시켜야겠다.

나는 비장한 시선으로 메리안을 바라보았다.

"메리안, 그대로 타고 있어. 내가 널 지켜주겠어. 만일 내가 죽으면 썬더라이더가 널 안전하게…"

"후치! 이 바보야, 왜 말에서 내려! 같이 도망가야지!"

윽. 메리안,제발! 내가 이 정도로 몸부림을 치면 뭔가 호응이 될만한 말을 해줘야지.

"남자애는 이런 순간에 그렇게 말하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다 여자애들에게 멍청하다는 말을 듣는 거야! 그리고 네가 한 말과도 다르잖아!"

"내가 한 말?"

"그래! 할 만하니까 한다는 말 말이야!"

"…가끔은 자기 신념과 틀린 일도 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내 신념에 틀린 행동은 아니야."

"무슨 말이니?"

"싸울 만하니까 내려선 거야. 내 말을 그렇게 못 믿어? 난 레티의 프리스트들과도 검을 나눠봤다니까. 이런 유랑민들 7 명 쯤은 별로 안 무서워!"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와 메리안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설전을 지켜보던 남자들은 '유랑민'이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난 고개를 돌리며 외쳤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드 래 곤 라 자 이 영 도

"당신들! 사우스 그레이드에서 여기까지 피난왔다가 먹고 살 일이 아무래도 난감하다 싶으니까 산적 영업을 개시해보는 거겠지? 그것도 이번이 첫번째지?"

"어, 어?"

"어떻게 알았냐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첫번째 인줄은 어떻게 알았냐고? 긴장감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지."

손에 괭이나 삽, 낫 등을 들고 있던 남자들은 이제 숨길 수 없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자, 잠깐. 뒷걸음질은 원래 숨길 수 없는 것이었나? 어흠!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싸움입니까?"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난 측은함을 느껴 검을 늘어트렸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늘어선 일곱 사나이들의 모습은 가관이었다. 움푹 들어간 볼엔 땟국물이 흐르고 있고 볼과 턱엔 정리되지 못한 수염들이 덩어리져 있었다. 옷은… 기울 시간도 여유도 없었는지 찢어진 채로 걸치고 있는, 저것은 옷이라기보다는 누더기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허기져 퀭한 눈에는 번들거리는 살기가 느껴졌다. 저 사람들로서는 이판사판이겠는데.

"제길, 쳐!"

사나이들 중 그래도 꽤나 강단있어 보이는 남자가 앞장서서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사나이들도 악에 받혀서 달려들기 시작했다.

"우아아아!" 아이고. 레티의 프리스트들은 공격할 때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어.

레티의 프리스트들이 내는 소리는 고작해야 "흡!" 하는 호흡 고르는 소리 뿐이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작자들은 비명도 안지른다.

"이 자식아, 그렇게 치면 나 죽잖아!"

샌슨은 고함을 지르며 목을 향해 날아오던 롱소드를 튕겨올렸다. 상대는 검을 회수하는 대신 뒤로 뛰어 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방어를 삼고 손은 이미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단하군! 하지만 그 성직자는 운차이의 모습을 놓쳤다. 운차이는 그 옆을 지나가다가 한 대 치고 지나갔고 성직자는 곧장 허물어졌다.

운차이가 달려든 곳에서는 덩치가 예사롭지 않은 프리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거인 프리스트는 두 개나 되는 롱소드를 부여잡은 채 운차이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차이는 날아오는 두 개의 검을 한 번에 튕겨내면서 피식 웃었다.

"쌍검? 그건 우리 나라에선 전설 속에서도 이미 사라진 느려터진 기법. 낡은 것에 집착하는 악취미의 댓가를 받으시지."

몸이 검을 인도했다. 운차이의 몸이 상대를 지나치고 검이 그 뒤를 따라 움직였던 것 같다. 내 눈엔 그 거밖엔 안보였다. 그리고 상대는 검을 떨어트리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운차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넋 빼놓고 있지마! 어느 칼이 네 모가지 가져가는 줄은 알아야 될 거아냐?"

이크! 난 바스타드를 휘저으며 뒤로 뛰었다. 탱! 오, 이런! 날카로운 떨림이 손목을 지나 어깨까지 흔들리게 만들었다. 상당히 정확하게 친모양인데? 숨을 고르고 앞을 보자 검을 꼬나든 채 날 마주보고 있는 금발 프리스트가 서있었다. 난 무턱대고 외쳤다.

"더 세게 쳐봐!"

금발 프리스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이 놈, 나한테 속았다! 타당! 금발 프리스트의 검은 간신히 막아내었다. 그리고 검이 부딪히는 순간 힘을 살짝 뺐다. 그러자 상대는 곧장 앞으로 밀어오기 시작했다. 씩 웃고, 곧장 앞으로 밀어붙였다.



공부하는 엄마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믿기 힘들 정도로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이 있다.
학창 시절 이렇게 공부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물론 매번 그렇지는 않다.
내 경우 아이들이 아파서 며칠 공부를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했을 때, 날씨가 좋아 산책 다녀온 뒤
공부를 할 때, 컨디션이 좋아서 공부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고 느낄 때 등
몇 안 되는 순간들이었다.

- 전윤희의 《나는 공부하는 엄마다》 중에서 -

* '엄마'는 보통의 존재가 아닙니다.
'신이 당신을 대신해 보낸'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중심이고 우주보다 큽니다.
그 '엄마'가 무엇에 몰두하고 재미를 느끼는지,
그것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투영되고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공부하는 엄마.
본인에게도 지적 성장의 매력을 풍기지만
바라보는 가족들에게도 무한한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Tel. 2479-1394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오늘의 운세



어려운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게 마련이다. 72년생 친한 친구들과 사소한 일로 다툴 수 있으니 주의하라. 60년생 영업자는 새로운 계약이 어려운 난관에 취해 있고, 운전시에는 운전 주의. 한 눈 팔다 사고 난다. 48년생 이사를 가려 하는데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어렵고 건강 주의하라.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행동하라. 73년생 갑자기 심한 두통이 일어나니 주의하고 친구들과 놀러만 다니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 61년생 유학 가는 것이 비용 문제로 어려운 점이 많으니 재고하라. 49년생 해외 이민을 가려 하는데 지체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려 하지 말고 남에게 도움을 청하라. 74년생 동료와 의견이 다르다고 다투지 말고 절충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62년생 형제간에 우애가 남다르니 집안끼리 나들이하면 좋을 수. 50년생 동업자와 다툼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니 주의하라.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신의 길에 첫발을 내딛는 구나. 75년생 마음먹은 일을 실행으로 옮겨라.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63년생 함정에 빠지나 조금만 기다려라. 전화위복. 승진이 보인다.51년생 다툴 일이 생긴다. 물러나지 말고 맞서라. 당신이 승리한다.



오랜 산고 끝에 새생명이 탄생하는 하루다. 고통을 무서워하지 마라. 76년생 부부,연인간의 애정문제에서 극적인 타결을 본다. 64년생 꼴 보기 싫은 상대와 동행하게 된다. 무조건 받아 주어라. 52년생 재물로 소송이 생길 것 같다. 해결은 시간이 좀 걸리겠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싱글의 경우 돈은 나가나 애인과 함께이니 즐겁다. 애인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다. 65년생 겉으로는 이익이 있는 것 같으나 손해를 보게 되니 주의하라. 53년생 사업은 성공적이나 가정불화가 있으니 가정에 신경 써라.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기 마련. 실직자는 취직운이 있다. 78년생 너무 기쁜 나머지 방종으로 흐를 수 있다. 감정을 절제할 필요. 66년생 실직자는 집에만 있지 말고 열심히 돌아다니면 취직이 된다. 54년생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오지만 조만간 다시 나가니 모아 둬라.



짝잃은 기러기가 천생연분을 만난다. 울타리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으로. 79년생 너무 일만 하지 말고 등산, 수영 등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좋다. 67년생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질책 받았다고 실망 마라. 너의 행동은 떳떳하다. 55년생 새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좋은 직장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온다.



교통사고 수가 있다. 자가 운전자는 대중 교통 이용. 음주운전 절대 금물. 학생이라면 공부 안한 벌이 주어질 것이며 배탈 조심. 68년생 주부는 남편이 박봉이라도 벌어다 주면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라. 56년생 옷을 구입하는 데 바가지 쓸 수 있다. 알뜰한 쇼핑 계획이 필요하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쫓다가는 다 놓치기 쉽다. 81년생 열심히 최선을 다 해야만 성공한다. 욕심을 내면 아주 불리해진다. 69년생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만 성공한다. 욕심을 내면 아주 불리해진다. 57년생 사업이 저조하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더울 어려워지니 현실 안주하라.



미련을 버리고 마음을 편히 하라. 싱글은 싫다고 떠나는 사람 생각 말고 좋다고 따라오는 사람 잡아라.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여권, 비자 발급이 지체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긴다. 58년생 사업에 진전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라.



손해 볼 일은 끝나고 이익만이 남아 있는 하루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 싱글은 여행에서 좋은 이성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다. 59년생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므로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된다. 47년생 운영하는 것이 크게 성공하며, 투자는 큰 이익을 얻게 된다.

스페인어 한 마디

partido de la oposición **야당**

El mayor partido de la oposición es el PSOE.

제1야당은 PSOE**이다.**

partido gubernamental **여당**

El partido gubernamental en Canarias es Coalición Canaria.

까나리아 지역의 지배 정당은 까나리아 연맹이다.

유 머

아내를 미치게 하는 방법

한국사람와 영국사람, 프랑스 사람이 모여 마누라를 미치게 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을 했다.

영국사람: 나는 〈일〉이 끝나고 나면 장미꽃을 마누라의 몸에 뿌려 준다고... 그럼 미친다고...

프랑스 사람 : 난 〈일〉 이 끝나면 오일을 온 몸에 발라 줘. 그럼 아주 황홀해 하면서 미쳐버리지.

그 말을 듣던 한국사람 왈

《난 말이야! 그 일이 끝나면 바로 침대에서 뛰어내리지. 그리고 창가로 가서 커튼에다가 내 거기를 닦아! 그럼 마누라가 미치고 말지!》 ^^

어찌나 자랑스러운지

83세의 노인이 고해실로 들어갔다. 신부는 십자를 그어 축복해주면서 그의 죄를 고하라고 했다.

'53년을 함께 해온 아내가 한 달 전에 죽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스물 두살된 처녀와 만나서 잠자리를 같이 했지 뭡니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여든셋요.'

'속죄하는 뜻에서 성모송과 주기도문을 각각 열 번씩 외우세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걸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난 어찌나 자랑스러운지 모두에게 알리고 싶단 말입니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과테말라 한인 교회 연합

다메섹선교교회



담임목사 김기택

ZOOM을 통한 LIVE영상예배.
금요성경공부 : 오후 8시
주일 낮 예배 : 오전 10시40분
ZOOM회의(예배) 번호
⇒ 911 918 9999
비밀번호 : 046322
21 Calle 13-15 Z.11 Col.Mariscal
전화: 2473-3968, 5511-6525

평강교회

주일예배 : 오전 11시
수요예배 : 오후 8시
금요기찬예배 : 오후 8시 (매월 첫주)
토요새벽기도회 : 오전 5시 30분
주소 : Ave 29-46 Z12 EL Bosque
전화 : 2476-5772 , 4677-4399
담임목사 : 변홍근 동사목사 : 최유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과테말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이정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인터넷 동영상
예배 사이트 →

주소 : 17Ave 28-92 Zona 12
교회 : 2293-2100

대한예수교장로회 과테말라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상돈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인터넷 동영상
예배 사이트 →

주소: 37ave. 3-36 Z.7 Col.el rodeo
교회: 2433-4533/담임목사:4768-5454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병성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인터넷 동영상
예배 사이트 →

주소 : 0 Ave. 9-41 Z.9
전화 : 2362-8565, 5176-3677

예배동영상 시청을 QR 코드로... QR사용법

휴대폰의 카메라를 QR 코드에 갖다 댄다
카메라 화면에 메세지가 보이면 클릭한다
만약 카메라 화면에 메세지가 보이지 않으면
QR코드스캔앱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QR 코드스캔앱을 실행해 화면에 갖다 댄 후
메세지가 나오면 클릭!

대한예수교장로회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박필종

BIBLE TIME과 함께
성경 읽고, 말씀 묵상

주일예배 : 주일오전 10시30분(방송예배)
새벽예배 : 월-토 6:00(방송예배)
주소 : 18Calle 5-92 Col.MARISCAL Z.11
교회 : 2474-4551 / 목사 : 5705-6646

예배 안내(유투브에서 검색하세요.)

주일예배 : 방송시간 오전 10:30
희망찬 새벽예배(월-토) : 방송시간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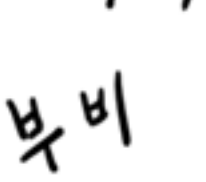
과테말라
선한목자교회

더욱 힘써 예배 합시다!!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Tel. 2479-1394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우생마생(牛生馬生)

가연일지 - 박원규

화면 밑줄.... 점사의 글에 눈익은 이름이 끌려가고 있었다.
"효도르".... 한 때 70억 중에 1... 격투계의 황제..... 인류 최강의 파이터 .....이런 칭호를 받던 러시아 출신의 격투기 선수이다. 그가 장악했던 정상과 머문 시간 그를 뒷받침한 체력과 승부욕 그리고 기량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이름에 따른 각주는 대략 이러했다.
... 효도르가 코로나의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런 기사였다.
깨깨하고 실망스러웠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았다. 인류 최강의 사나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라이트 한방 맞고 뻗었다는 뉴스는 매에 장사없다는 말이 바이러스에 이길 사람 없다 는 말로 바뀌면서 효도르라는 이름이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본방은 바이러스가 미오의 16자 전법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 중였다.
경계 수위를 높이면 물러가고 경계를 풀면 공격하는 전통 게릴라의 수법을 따르고 있었다.
"적이 다가오면 도망가고 물러서면 쫓아가고 멈추면 교란하고 약해지면 공격한다"...이는 치사하지만 대륙을 집어삼킨 전술이다. 모르긴 몰라도 효도르도 이같은 하찮은 술수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으로 판단하지만 부각되지 않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신감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은 쉽지않다.
강하고 약한 것은 선을 그을수 있지만 강할 때 강하고 약할때 약하게 대응하는 선은 긋기 어렵다. 아마 막강한 효도르도 연약한 바이러스의 외형을 우습게 보고 약하게 대응했다가 한방에 갔다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었다. 신이 누구던가 자타가'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의 최상위 지배자로써 위엄과 존경을 받는 입장에서 짠짠한 바이러스에 겁을 먹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만만히 내려보다 결국 명성에 먹칠을 하는 수모를 당했다고 본다.
이 일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이 아니다. 유유제강의 도를 무시해서도 아니다. 교만의 뒷끝도 아닐 것이고 용맹이 쇠락한 증후도 아니다.
이는 누구도 예외없이 걷잡을수 없는 태풍의 눈속에 갇혀있다는 엄중한 메시지라고 볼수있는 소식였다.

우생마사 (牛生馬死) 고사가 생각난다.
우화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헤엄을 잘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물에 오르는 것이지요"
말은 소보다 수영을 잘 하지만 홍수가 나 물에 빠지면 말은 익사하고 소는 살아 남는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말은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고 물살을 거슬러 오르다 힘이 빠져 익사하지만 소는 물살을 따라 흘러가다가 땅에 닿는다고 합니다.
순리를 말하는 물흐름과 빠름과 우직한 牛馬의 이야기는 언제나 삶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몇년째 지인들과 어울린 산행이 몇주 전부터 의문이 생겼다.
주변에 늘 떠도는 코로나의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불안이 조금씩 커진 것이다. 비대면의 예의와 배려가 상식으로 자리 잡히면서 생긴 불행에서 알게 모르게 사람을 조심하고 멀리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건강을 위하여 산을 오르는 힘겨움은 순리지만 앞 서거나 뒷 서거니 스치고 나누는 산행의 즐거움이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오히려 역행일수 있다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자신이 활동하는 방법과 공간이 서로 다른 방법의 공간과 합치면서 어떤 불순한 요인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염려는 상식에 "비"자를 붙여도 떼어도 이해가 되는 요즘에 있어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산행이 적당히 살이 올라 오르막이 점점 가벼워져 가건만 마음은 내리막을 걷고 있었다. 馬도 살고 牛도 살아가야 한다 는 말이 동행의 맛에도 사회적 거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사를 던진 것이다. 각각의 활동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집합과 만남 대화와 접촉의 불가피 함이 산에 까지 따라올 수 있다는 염려는 막연한 기우가 아니라는데 공감을 하면서 한주 내내 답답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주 산행에서 만사불여튼튼으로 결성된 세분의 여성 지도자님이 뜻을 모아 길을 여셨다. 구비구비 산길을 걸으며 공감을 풀어내셨다. 세속의 숙제는 세속의 수완을 푸는 법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하여 해결하셨다는 발표를 하시면서 뒤 따르던 세명의 궁여남책의 쓸데없는 걱정도 저절로 풀렸다. 더불어 산행의 장애도 풀렸고 인생의 고민도 풀렸다.
,,,,,,,든든하게 각자 각생의 안행을 유지하면서 牛生馬生의 걸음으로 산을 오르기로 했다.....

스 도 쿠

난 이 도 : 쉬운 단계

		3			2		8	5
	7		1			9		
6		5		9	7		1	
		7			4		9	6
	1		8				7	
5	3		2	7		1		
	4		7	2		6		9
		9			5		2	
2	5		9			4		

난 이 도 : 어려운 단계

	1		6		4	9		
5			1					8
	8				5	1		
	3							
	5		3				8	
				6			2	
		6	4				3	
9					6			2
		1	5		8		9	

오늘의 스도쿠 정 답

쉬운단계정답

7	3	4	6	8	9	1	5	2
1	2	8	5	3	4	6	9	7
9	5	6	1	2	7	8	4	3
8	4	1	9	7	2	3	6	5
2	7	5	3	6	8	4	1	9
6	9	3	4	1	5	7	2	8
4	1	2	7	9	3	5	8	6
3	6	9	8	5	1	2	7	4
5	8	7	2	4	6	9	3	1

어려운단계정답

4	9	6	8	2	5	1	7	3
2	1	8	9	3	7	5	4	6
7	3	5	6	1	4	9	2	8
5	2	3	7	6	8	4	9	1
9	8	7	1	4	3	2	5	6
1	6	4	2	5	9	8	3	7
6	7	1	5	9	2	3	8	4
8	4	2	3	7	1	6	6	5
3	5	9	4	8	6	7	1	2



Tel. 2479-1394 한과정보 / 교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 www.hagua.net E-mail : jiny74@gmail.com

1월 14일 한국컨테이너 입하

보 물 창 고

단체 김 주문
받습니다.



과자 10봉지
Q120



삼육검은콩두유. 연세딸기우유.
연세바나나우유 (24팩입)
빙그레 바나나우유. 빙그레 딸기우유
서울흰우유. 엔요. 베지밀 A

간편한 한끼 ... 비비고단호박죽. 단팥죽.
전복죽. 쇠고기죽. 녹두닭죽.야채죽컵반. 닭곰탕.
설렁탕. 미역국밥. 불닭덮밥. 마파두부. 육개장.
선지해장국. 김치날치알밥. 비비고순댓국. 비비고
추어탕. 비비고알탕. 비비고 쇠고기 장터국밥







맛있는 간식 ... 육포. 롱다리. 한입꼬마약과.
추억의꽈베기. 천하장사소세지. 뽀로로소세지.
쫀디기. 께찰빵믹스가루. 미니도너츠가루

냉동류 ... 메밀전병만두. 떡갈비. 돈카츠. 핫도그.
고메함박스테이크. 비비고 수제고기만두. 군교자.
새우만두. 찰보리감자만두. 군만두. 병천찰순대.
병천고추순대. 너른골찰순대. 동태전. 떡갈비.
김말이. 훨터치 소시지. 새참바. 고메중화짬뽕



배달 직통 번호 5318-0169 카톡 주문 가능

배달 직통 전화번호 : 2473-8255, 2473-8222, 5318-0169

Anillo Periferico 22-29 Z.11 C.C San Jorge Local 14

(컴퓨터 판매 및 수리. 한글자판 및 스티커. 단체 김 주문)

MEGA M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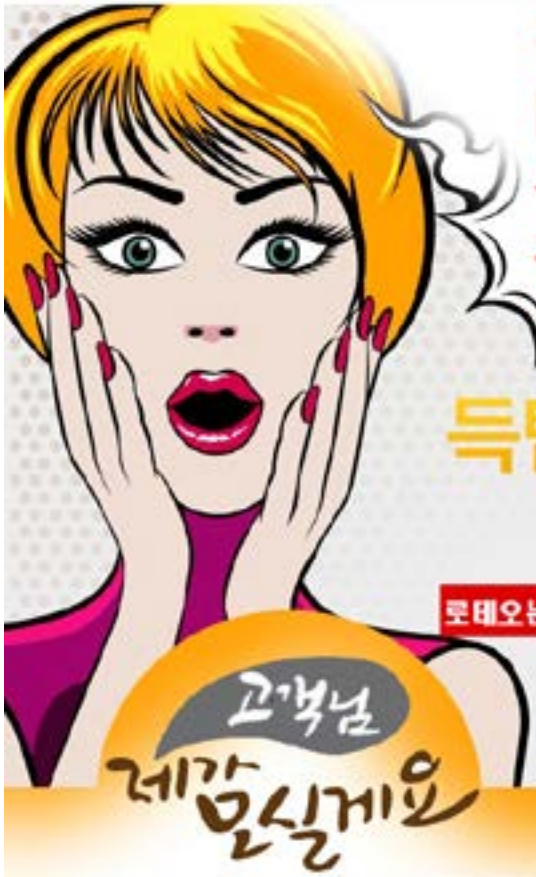
로데오

한국택배전문 2433
통합배달전문 9015



1월 21일 한국 신상 대량입하

세일기간 : 1월15일부터 2월8일까지
식품 화장품 20% + 잡화 그릇 냄비 30%
생활용품 30% + 문구 속옷 70%



전품목 대박 할인중? 신상품도 같이 할인?

로데오가 가성비의 답이다

득템을 위한 꿀팁!

로데오는 짜게 놀지 않아!!

GOOD!

고객님 계갈 곳 없게요

3호점 택배 픽업 서비스 실시

물건보내실때 박스에 이름과 같이 3호점 픽업이라고 써주세요

택배

이젠 안심하고 간편하게 찾아가세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일반택배 접수합니다

본점
2433-9015
2호점
2221-5364
3호점
2367-0137

통합협력업체

아람정육점 4514-0802
마장동 3258-8320
밀베이커리 4545-4504
순풍식당 2508-5635
향이 4576-5786
진미식당 5550-1317
본가 2445-6050

통합 배달 전문

한국 택배 전문